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蘆溪 詩歌의 현실인식과 寫實性 지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梁 楨 桓

2017年 8月

蘆溪 시가의 현실인식과 寫實性 지도

指導教授 孫 五 圭

梁 禎 桓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7年 6月

梁禎桓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7年 8月

Teaching of the awareness of reality and truth in
Nogae's poetry

Yang, Jeong-hwan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7.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Sohn, O-Gyu, Prof.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
.....

.....
Dat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蘆溪 시가의 현실인식과 寫實性 지도

양 정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손 오 규

이 논문은 蘆溪 朴仁老의 詩歌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寫實性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에 대한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노계 시가의 현실인식과 사실성을 노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살펴보았다. 전쟁 이후 피폐해진 현실과 양반으로서의 이상 사이에서의 갈등, 미관 말직의 무관으로서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신분상의 한계와 왜적에 대한 강한 적개심 사이에서의 갈등, 수양실천 의식과 현실에서의 갈등으로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의 지도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번에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다.

첫째, 蘆溪 朴仁老의 生涯를 살펴보면 그는 전형적인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과 달리 현실의 체험적 삶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노계의 갈등의식의 표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蘆溪 朴仁老가 작품에서 말한 安貧一念 즉 安貧樂道의 이상적 삶은 이상이 아니라 노계가 가졌던 현실에 대한 체념의식의 한 표현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蘆溪 朴仁老가 여현을 따라 학문 수양에 정진하던 시기는 사대부 文人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으며 修養樂道의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노계 시가의 지도에 앞서 고전 시가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자들에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학습자 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거리가 있는 주제의식의 학습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노계 시가의 지도 방안으로 「陋巷詞」, 「船上嘆」, 「立巖二十九曲」의

세 작품을 통해 노계의 현실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가상의 대단원을 설정하고 단원의 학습목표에 맞춰 여섯가지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노계가 부정적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버린 인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지평을 넓혀나간 도전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전 시가의 교육적 의의가 단순히 전통의 계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식의 재발견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 례〉

<국문초록>

I. 序論	1
II. 蘆溪의 生涯와 학문적 경향	6
1. 生涯와 社會·經濟的 位相	6
2. 嶺南學派와 蘆溪의 學脈	11
3. 蘆溪의 旅軒 張顯光 師承	14
III. 蘆溪의 山水에 대한 認識	18
1. 생활 공간과 安貧樂道	18
2. 노동 공간과 경제적 궁핍	22
3. 修養 공간과 現實超脫	26
IV. 蘆溪 詩歌의 現實認識과 寫實性	29
1. 「陋巷詞」에 나타난 농촌의 경제적 궁핍	30
2. 「船上嘆」에 나타난 國難과 위기극복	44
3. 「立巖二十九曲」에 나타난 修養樂道	53
V. 蘆溪 詩歌의 지도 방안	56
1. 「陋巷詞」를 통한 田園과 농촌현실인식	63
2. 「船上嘆」을 통한 國家危難과 사대부의 使命意識	69
3. 「立巖二十九曲」을 통한 학문연구와 사대부의 隱居	74
VI. 結論	80
<참고문헌>	84
<Abstract>	87

I. 序論

蘆溪 朴仁老(1561~1636)는 조선시대 명종·선조·광해군·인조 4대에 걸쳐 살았던 武官 출신의 文人이자 作家이다. 노계가 살았던 시기는 각 당파의 대결이 치열하던 정치적 혼란기였고, 임진왜란, 광해군의 즉위와 인조반정,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격변기였다. 그런 시기에 시가 작품을 통해 보이는 노계 박인로의 山水에 대한 인식은 이전 사대부들의 전형적이면서도 관념적, 추상적, 이상적 현실인식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조선조 文人들의 많은 작품들에서 山水는 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이며, 山水詩歌는 조선시대에 지속적으로 창작된 갈래였다. 그 이유는 山水詩歌가 주요 창작층이었던 사대부의 미의식과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갈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속에서 산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유자적한 삶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혹은 어지러운 세속을 벗어난 새로운 삶의 무대가 되며, 때로는 복잡한 생활상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안겨주는 휴식처이기도 했다. 또 어떤 작품에서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했던 우주적 질서를 내포한 상징물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사 문학에서는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사대부가사는 같은 사대부들의 창작품인 樂章이나 景幾體歌와는 또 다른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악장은 국가 주도의 창작과 편찬 작업의 산물이었던 만큼 공적인 영역의 문학장르였고 따라서 다양한 개인의 갈등 의식을 담아낼 수는 없었다. 경기체가도 일반 민중들과 차별화된 사대부들의 문화적 우월의식의 표출이 그 주를 이뤘던 것만큼 그 속에는 개인의 갈등 의식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다. 시조는 앞에서 언급한 갈래들에 비해 다양한 의식을 담아내는 틀이 되었고 조선 후기 창작층의 다변화, 다양화를 통해 그 변화의 양상이 급격했지만 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분량이라는 갈래적 특성 때문에 그 속에 갈등 의식이라는 복잡한 화자의 자의식을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반면 가사는 창작층과 분량, 갈래의 형식적 자율성 등 때문에 다양한 시대적 변화상과 개인의 갈등 의식

을 담아내기에 적합했다.

조선 시대를 역사적, 사회적으로 양분하게 되는 대사건이었던 임진왜란은 가사 문학에서 내용적 지향을 가르는 기점이었다. 체제적, 국가적으로 안정기였던 조선 전기에 가사문학은 사대부들의 이념을 강하게 표출하는 장르적 성향으로 존재하였다. 그 속에서 흔히 산수는 사대부들의 이념적 이상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었다. 이후 임진왜란 이후 일반 서민층만이 아닌 양반 사대부들에게도 의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런 변화는 가사문학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조선 후기의 가사들 속에서 원래의 작자층이었던 양반사대부들에게도 의식의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작자층의 측면에서도 그 향유의 폭이 전폭적으로 넓어지고 그와 함께 자연스럽게 다양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

노계의 가사 작품에서도 산수에 대한 인식은 임진왜란으로 인해 무너진 사회 현실에 대해 직시하고 민중의 삶의 피폐함을 확인하는 배경이었다. 또한 그와 함께 사회의 人倫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노계의 산수는 이전 혹은 당대의 사대부들이 가졌던 관념적, 추상적, 이상적 현실 인식과는 다른 지평을 열 수 있었다.

노계 이전 사대부들의 관념적, 추상적, 이상적 현실인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노계 이전 사대부들에게 있어 산수는 ‘돌아가고자 하는 곳’으로 규정지어진다. 현실로부터 벗어나 산수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피상적 의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글에서 나타내는 산수에서의 삶에는 현실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 현실에서 빚어지는 여러 문제 해결의 상황이 적극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며 하다못해 단순한 의식주의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치열한 자구노력조차 그려지지 않는다. 그들에게 산수는 물질이나 환경으로서의 산수의 세계가 아닌 그들의 관념에서 비롯된 이상세계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山水라는 공간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자연을 지칭하는 말로는 江湖라는 말이 국문학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강호에 대해 윤덕진은 ‘강호라는 상징적 어휘가 다만 은일의 조건이 되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자연 또는 우주와 같은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 조건에 대한 정서 반응이 이루어지는 심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라고 정리하였다.¹⁾ 그러나

1) 이승남, 『사대부 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3, p.20

이와같은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포괄적이다. 그리고 우리 고전 시가 작품에서의 장호는 주로 ‘紅塵, 人世, 世俗, 人生世間’ 등의 부정적 현실과 대립적 성격을 띠는 생활환경으로서의 장소적 의미가 강하다. 자연과 동일한 의미로 山林이라는 말도 사용되었는데, 이 山林도 역시 장소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山林學派라고 할 때는 장소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강하다.²⁾ 따라서 山林이라는 함은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 의미로 작품 안에서의 의미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고전 시가 안에서의 ‘山水’라는 용어는 사회에 대한 상대적 기념으로서 자연현상과 삼라만상을 포함한 자연의 所産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 동시에 그 대상을 바라보며 감상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意識과 志向性이 함축되어 있는 문학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³⁾ 따라서 장소적 의미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정치적 의미와는 큰 연결고리가 없으며 자연 자체로서의 대상적 의미를 갖는 명칭은 山水이다.

노계 박인로가 살았던 공간은 노계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노계 자체가 정치적 지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지만 딱히 관료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유별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은 없고 이후 살게 된 공간이 정치적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분법적 의미의 공간은 아니었다. 노계는 그 속에서 삶에 대한 고민과 지향을 풀어내려 했으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적 삶 자체를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노계의 공간은 정치적 의미와는 특별한 의미적 관련을 맺는 공간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로서의 문학적 대상이면서 동시에 생활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陋巷詞」는 전기 사대부 가사에서 찾기 힘들었던 구체적 현실상에 대한 蘆溪의 관심이 전면에 드러나는 작품이었다. 고고한 정신세계를 지향하던 이전의 양반 사대부 가사와는 분명히 달라진 노계의 산수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이후 달라지게 되는 가사 문학의 변화 양상의 신호탄과 같았다.

반면 노계는 그 속에서도 유교적 관념에 대한 지향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음으로써 사대부로서의 계급인식을 버리지 않음과 함께 문학적 측면에서도 조선 전기 가사의 지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함께 존재한다.

2) 손오규, 『山水文學研究』,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4, p.40

3)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p.18

이런 부분은 노계 가사에서 드러나는 현실인식이자 갈등의식이라 할 수 있다.

언어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 속에서 생겨나는 구체적 산물’이며 ‘이데올로기의 영역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⁴⁾이라는 Mikhail Bakhtin의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계 문학에 드러난 복합적이면서도 현실과 이상 사이의 양가적인 표현들이 노계의 갈등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갈등은 사회학적으로 ‘가치 또는 지위, 권력 및 희소 자원에 대한 요구 간의 투쟁’⁵⁾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노계는 작품 속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적 지위,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요구에서 투쟁했고 그것이 작품 내의 여러 표현에 녹아 있다는 것이다. 노계 작품에 드러난 언어화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 노계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蘆溪는 관직으로 진출하기까지 남다른 성장기를 보내거나 뚜렷한 배경을 태생적으로 타고난 인물은 아니다. 그래서 노계의 작품 세계는 어릴 때부터 훈련된 사대부 특유의 문체나 전형적 인식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蘆溪集』에 보이는 다양한 작품은 선천적이거나 양반 사대부 자제들이 어릴 적 받았을 훈련과 교육의 정도를 뛰어넘는 본인의 문학적 재능을 통해 완성된 노계 자신만의 작품 세계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가사문학에서는 가사문학의 최고봉인 松江 鄭澈(1536~1593)과 시조문학에서는 孤山 尹善道(1586~1671)와 어깨를 견주며 조선시대 문학사상 송강·고산과 함께 ‘近世 三代 詩歌人’으로 인정하는 평가⁶⁾는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67수의 시조와 9편의 가사, 109수의 한시 작품들로 대변되는 많은 수의 작품을 남긴 작가였다라는 외면적 평가를 제외하면 사실 노계 박인로의 시가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후한 편은 되지 못했다. 노계의 작품이 송강이나 고산의 것과 비교할 때 격이 낮다, 특정 지역이나 한 개인에 대한 노래가 많아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한자의 불필요한 사용이나 고사가 많이 인용되어 특유의 문체적 특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같은 말의 반복에서 오는 표현 기교가 단조롭다는, 교훈적 내용이 대부분으로 주제의식이 평면적이다⁷⁾라는 것이 그런

4)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바흐친의 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8, p.21

5) Lewis Coser, "Conflict: Social Aspect" in David L. Sh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III, p.232~236. 김종덕, 李朝黨爭에 관한 社會學的 一研究, 『한국학보』 24, 1981 가을, 일지사, p.166 재인용

6) 박성익, 『송강·노계·고산의 시가 문학』, 현암사, 1972, p.3~4

7) 이주아, 「노계 박인로의 전쟁가사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95

낮은 평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평가들은 작가가 살았던 시대의 입장과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계의식의 극복 노력을 간과한 평가이다. 또한 노계의 작품 전반은 다른 사대부가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현실적 인식이 도드라지고 그것이 갈등의 양상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현대적 관점의 재해석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노계 시가의 진면목은 작품 수나 문장의 유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노계만의 의식세계와 그것들의 담아낸 진솔한 표현, 그리고 실천적 의식에 있다.

노계는 의식적으로는 양반 사대부로서의 계급의식에서 벗어나려한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사회계층의 틀로 인해 몸소 농삿일에 손을 붙일 수 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이런 현실 상황은 그가 의식적으로 양반 사대부였지만 이를 누리고 향유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했고, 특히 임진왜란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져버린 사회적 현실은 좌절감으로 체화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의식들이 그의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현되었고,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여타의 사대부들과 차별화된 의식을 확인하게 해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고전시가는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어휘가 나열된 난이도 있는 텍스트로 취급된다. 게다가 고전시가에 보여지는 관념적 주제의식들이 현실의 삶과는 다소 동떨어진 재미없는 텍스트로 인식된다. 노계 시가의 현실인식과 작품 속에서 보이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 양상은 과거 우리 선인들의 삶이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경험의 한 틀이 될 수 있는 학습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를 노계의 현실인식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사대부들과 다른 노계 시가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갈등의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산수를 이상적 삶의 공간만이 아닌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여, 치열한 삶의 현장임을 보여주는 노계의 시각에 대한 문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산수에 대해 다른 사대부들과 차별화된 시각이 유독 노계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계 시가의 문학사적 의의와 더불어 작품 선정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다른 고전 시가들과 차별되는 노계만의 현실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

한 이런 현실인식을 확인하고 자칫 단순하게 흐를 수 있는 고전 시가의 주제의식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노계 시가의 현실인식과 사실성의 지도에 대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에 蘆溪의 학문적 경향과 영남 시가에서의 노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노계의 세계관이 다른 사대부들과 차이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내·외부적 상황에 대한 고찰이 될 것이다. 또 蘆溪 자신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일관되지 못한 세계관의 차이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갈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蘆溪의 현실인식의 단서를 찾는 시도가 될 것이다.

II. 蘆溪의 生涯와 학문적 경향

1. 生涯와 社會·經濟的 位相

蘆溪 朴仁老의 생애를 통해 그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 과정이다. 앞 서론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노계의 문학 세계는 양반 사대부 자제들이 어릴 적 받았을 훈련과 교육의 정도를 뛰어넘는 본인의 문학적 재능을 통해 완성된 노계 자신만의 작품 세계이다. 따라서 그의 생애를 확인하는 과정은 그의 문학작품 속 의식을 추론하는 과정의 큰 단서가 될 것이다.

이전 많은 논의에서 박인로의 처지를 ‘沒落 鄉班’으로 규정지으며 그의 작품의 의미를 그 관점에서 파악하려 했다. ‘몰락 향반’이라는 규정 속에는 노계가 가졌던 사회적, 신분적 배경과 함께 경제적 궁핍이라는 경제적 상황을 담아낸다. 그리고 그 중심에 「陋巷詞」가 위치해 있었다.

노계 박인로는 1561년 承議副尉 朴碩과 新安 朱氏 사이의 장남으로 영천군 북안면 도천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성장과정에 대해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하지만 노계의 어린 시절에 대해 『蘆溪集』 2卷의 <行狀> 부분에 ‘明達如神 不教子 而自能通解’ 즉 ‘밝게 통달함이 神과 같아 글자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능히 통하여 이해하게 되었다’⁸⁾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부분은 蘆溪가 글공부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보일 정도로 탁월했다는 언급이지만 반면에 노계가 특별히 이름 높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된다. 또한 어려서부터 詩才가 뛰어나 13세에 「戴勝吟」이라는 한시 칠언절구를 지어 주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午睡頻驚戴勝吟	오디새의 울음에 낮잠을 자주 깨네
如何偏促野人心	들사람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재촉하는가
啼彼洛陽華屋角	별 좋은 집 처마에 앉아 울어서
今人知有勸耕禽	지금 경작을 권하는 새가 있음을 알려주거라 9)

<戴勝吟>

이 글은 단순히 노계가 어릴 때부터 文才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단서인 것 말고도 어릴 때부터 노계 본인이 농민의 삶과 농사에 관심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단서이다. 이는 이후 농민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과 농사에 대한 자기 참여 의식이라는 노계의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의식이 되기도 한다.

노계 박인로는 32세되던 해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別侍衛에 있다가 영천의 의병장 鄭世雅의 수하로 참여한다. 1599년 39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武科에 급제하고 守門將, 宣傳官 등 몇 개의 관직을 잠깐 지낸 뒤 助羅浦 萬戶에 이르게 된다. 조라포 만호는 군사의 조련과 배치, 둔전의 개간 등을 맡는 직함이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붕괴된 국가 체제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助羅浦 萬戶의 직을 수행하던 중 蘆溪는 軍器 수리

8)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p.96

明達如神 不教子 而自能通解

9)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앞의 책, p.96

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罷職을 당하게 된다.¹⁰⁾ 그러나 파직이라는 상황과는 달리 그의 善政에 감동한 士卒들이 노계의 청렴결백과 고고한 인품에 감사하며 공덕비를 세웠다라는 기록¹¹⁾이 있는 것을 보면 업무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인한 파직은 그의 측면에서는 다소 일방적이고 억울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다. 『蘆溪集』 <行狀>에는 이에 대해 “난 후 나라에서는 武臣을 업신여겨 공이 변방을 지킬 때 時事가 변했다. 이로부터 田野에 자취를 감추고 나아갈 뜻이 없이 단지 담백하게 自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¹²⁾ 즉 崇文偃武의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벼슬에서 물러난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관직에서 물러나 노계는 51세 되는 해인 1611년에 漢陰 李德馨을 시작으로 寒岡 鄭述, 芝山 曹好益, 旅軒 張顯光 등과 같은 당대의 顯官과 학자들을 좇아 함께 지내고 학문적 가르침을 청하며 성리학에 몰두하게 된다. 69세 되는 해인 1629년에 旅軒 張顯光을 따라 立巖으로 찾아와 가르침을 청한다.

70세 되는 해인 1630년에 龍讓衛副護軍으로 추천되었으며 按察使 李溟이 노계를 ‘獨行特立之士’로 칭송하는 疎를 올리자 仁祖는 쌀과 고기를 내려 그 자손을 도와주도록 한다. 76세가 되는 1636년에는 蘆溪에 은거하면서 「蘆溪歌」를 지은 뒤 82세로 卒하게 된다.

이렇게 노계의 삶을 정리하며 그가 남긴 작품들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 보인다.

첫째, 노계가 어린 시절 이름난 유학자로부터 특별한 학문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받지는 못했다.

둘째, 守門將 · 宣傳官에서 助羅浦 萬戶 등으로 이어지는 벼슬을 역임했으나 이 벼슬들이 중앙의 핵심적 관직은 되지 못했다는 점과 그마저도 파직으로 불명예스럽게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이름난 유학자들을 찾아 따르며 가르침을 청하여

10) 『光海君日記』, 광해군 4년(1612) 11월

11)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p.97
助羅浦萬戶時 秋毫無犯 撫卒如子 人皆以水清玉潔稱之 迺來本浦 軍卒立清德善政碑

12)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p.98
難後國家偃武 公纔適邊守而時事又大變矣 自是斂迹田野 無意進取 只泊然自守而已

성리학의 수양에 힘썼다는 것이다.

넷째, 노계가 이룬 여러 유학자들을 從遊한 끝에 旅軒 張顯光에게 가르침을 청하며 「立巖二十九曲」을 짓기에 이룬다는 것이다.

노계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노계가 작품 속에 드러낸 자의식을 살펴 볼 수 있는 근거이기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할 부분이다. 이 부분이 노계의 작품들이 가지는 다른 사대부들의 가사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노계의 위치를 해석함에 있어 노계의 작품에 드러난 내용들이 하나의 비유나 어떤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입장에 다르지 않다는 의견¹³⁾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에는 박인로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해석함에 있어 그를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린 경제적으로 궁핍한 殘班, 즉 집안 세력이나 살림이 보잘 것 없어진 변변치 못한 양반으로 규정짓고 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沒落 鄉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다소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예도 있으나 ‘沒落 鄉班’이라는 용어는 큰 범주에서 노계의 위치를 명분상 양반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몰락과 더불어 실제로 양반 구실을 하기 어려운 처지였음을 드러내는 용어로 많이 쓰였다.

조선시대의 지배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세속에서는 ‘兩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지식층들은 이보다는 ‘士族’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 외에도 士大夫, 士夫, 등이 쓰였으며, 지방의 사족을 지칭할 때는 鄉班, 鄉族, 儒鄉이 라는 용어로 자주 쓰였다. 이 중 ‘士族’이라는 용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기에 법제적으로 규정된 용어이기도 하다. 中宗代에 법제적으로 마련된 정의를 빌리자면, 사족의 범위는 자신이 생원·진사인 자, 內外에 顯官이 있는 자, 文武科 及第者 및 그 자손으로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현관의 범위가 문제가 되어 東西班 正職 5品 이상, 六曹郎官, 監察, 守令, 部將, 宣傳官까지를 顯官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기준에서 蘆溪 朴仁老는 수문장, 선전관을 지낸 뒤 종4품에 해당하는 조라포 만호까지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엄연히 士族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¹⁴⁾

13) 김기탁, 「노계가사의 현실인식」, 『한민족어문학』7, 한국어문학회, 1980

14) 최현재, 「朴仁老 詩歌의 現實的 基盤과 文學的 指向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3~14

이는 노계를 분명한 양반 사대부의 반열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 노계를 ‘몰락 향반’으로 규정짓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鄉班’이다. 단지 중앙관직에서 소외된 시골 양반이라는 의미로 鄉班이라는 의미를 갖고 온 것이라면 노계의 작품에서 보인 경제적 피폐함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선 시대 향촌 사회는 비록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양반의 지배적 위치가 공고한 경우가 많았다. 이 지배적 위치는 학문적 소양을 통한 지식인으로서의 권위나 경제적 우위에서 오는 지배력인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 위치를 고스란히 노계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陋巷詞」와 같은 작품에서 드러난 화자의 위치를 노계의 위치와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그 속에 드러난 鄉班의 지위는 지역민으로부터 지배적 위치를 점한 존중의 대상이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실제 『蘆溪集』 <行狀>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젊은 날 귀한 말채찍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술에 취한 장부가 채찍을 빼앗아가자 공은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¹⁵⁾

이를 <行狀>에서 ‘외물에 초탈함이 이와 같을 때가 많았다’와 밝힌 것과 같이 노계가 물욕이 없고 큰 아량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일화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노계가 지역 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함에도 변변하게 저항을 하지도 못할 정도의 위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화로 보인다. 문자 그대로 귀한 말채찍을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무 동의없이 가져갔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는 것은 상식적 반응과 상황이 아니다. 이것이 노계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되려 노계가 술에 취한 장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물건을 취해도 될 정도로 만만한 존재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해석이라 생각된다. 즉 노계가 이전의 양반들과 달리 鄉村 社會에서 확고한 지배적 위치를 점하지 못하고

15)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p.102
少日携寶鞭一隻 路遇賤丈夫乘醉掠去 公不顧而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화라 할 것이다.

노계의 위치를 ‘沒落 鄉班’이라 규정지을 때는 그가 신분상으로만 양반일 뿐 사회적으로 양반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 많이 인용되는 것은 「陋巷詞」이다.

여기서 노계가 작품에서 말하는 가난이 과연 경제적 곤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는 다른 논의의 영역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戰亂 이후 총체적으로 몰락한 사회상과 개인적인 가문의 몰락을 반영한 실제 경제적 곤란의 상태를 언급한 것이고 작품 속에 드러난 화자의 삶이 바로 노계 자신의 삶의 반영이라고 본다면 노계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경제적으로 몰락한 지방의 양반 즉 ‘沒落 鄉班’으로 규정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2. 嶺南學派와 蘆溪의 學脈

노계가 살던 시대는 조선의 文治가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선조 대에 이르러 충성, 의리, 예의와 같은 유교적 이념에 의한 통치가 사회적 기풍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시기였고, 지나친 文治로 인해 국가의 여러 시스템들은 취약점을 노출했고 임진왜란으로 이어지는 국가 붕괴 사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 때였다. 사실 선조 대까지 큰 외부적인 침입이 없던 평화기였던 것은 조선이 유교적 文治가 유려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노계 박인로의 시대는 사대부들에 의해 양반 사회의 질서가 굳어지고 오랜 士禍로 인해 일부 양반들이 출세보다는 자연에 숨어 儒學的 理想을 위한 生活로써의 수양을 중시하던 시기였다.

선조 이전 士林은 여러 사화를 거치며 심한 정치적 타격을 입으며 지방으로 낙향하였다. 선조 집권 이후 사림은 다시 조정에 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사림 자체의 분열로 朋黨으로 이어지고 스스로 조정능력을 상실한 어수선한 시기에 壬辰倭亂(1592)을 당하게 된다. 임진왜란 이후 사림은 학문의 연구와 후진의 양성에 힘쓰며 山水에 隱居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노계 박인로가 세상에 등장했던 시기는 그런 정치적 격변기였고 영남 사림의 정치적 위축기였다. 그런 배경에서 노계는 自意에 의해서든 他意에 의해서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변변한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정치적 이상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한 노계에게 이런 시대적 배경과 자신에게 주어진 좁은 정치적 입지는 立身을 꿈꿨던 노계에게 있어 좌절의 근원이기도 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중국의 사마광으로부터 성리학의 정통성을 찾으려 했다. 그에 이어 晦齋 李彦迪은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학문적으로 정립시킨 선구적 인물이다. 晦齋는 주희의 주리론적 입장을 정통으로 확립함으로써 조선 유학의 방향과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晦齋는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선구적 인물이자 영남학파의 창시자라 할 수 있다. 영남학파는 퇴계 이황에 의해 제기된 주리론의 성리학적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학파로서 퇴계학파로 분류해도 무방하다. 이런 정리에 따르면 晦齋는 退溪의 학문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蘆溪는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여러 선현과 학자들을 從遊하면서 紫玉山으로 간다. 노계가 紫玉山으로 간 것은 성리학 수양의 길을 떠나는 과정에서 晦齋의 유적지를 찾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계가 紫玉山으로 晦齋 李彦迪의 흔적을 찾아간 것은 성리학을 통해 사대부 文人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려 했던 노력으로 보인다.

『蘆溪先生文集』에 「獨樂堂」에 대해 “경주 옥산에 있으니 晦齋 李先生이 거처하던 당이다. 공이 遺蹟을 찾아가 보고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註가 부기되어 있어 박인로가 이언적의 유적을 찾아 先賢의 풍모를 기리며 노래한 것이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다.

노계는 회재 이언적을 학문적으로 景慕하였다. 노계가 「獨樂堂」을 지은 것은 회재 이언적에 대한 敬慕의 증거이며, 晦齋의 흔적을 찾아 떠났던 여행의 결과물이자 성리학적 수양으로서의 학문적 從遊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16) 노계가 언제 누구와, 어떤 계기로 독락당을 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崔顯載는 『朴仁老 詩歌의 現實的 基盤과 文學的 指向 研究』(서울대학교 국어국문과 박사학위논문)

노계는 晦齋의 유적 뿐만 아니라 漢陰 李德馨, 寒岡 鄭述, 芝山 曹好益, 旅軒 張顯光 등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면서 성리학에 정진하였다.

그 중 旅軒 張顯光은 흔히 노계의 학문적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노계는 여러 賢學들을 찾아갔던 중 旅軒으로부터 큰 감흥을 받은 듯하다. 노계는 병자호란 이후 속세를 버리고 立巖으로 은거한 旅軒을 따라 立巖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旅軒의 「立巖歌」에 맞추어 「立巖二十九曲」을 짓기에 이른다.

旅軒 張顯光은 16세기 말엽부터 17세기 전반기의 성리학계를 대표할 정도의 학자이다. 장현광은 드물게 순수 성리학 이론의 탐구에 몰입하여 성리학의 이론 분야에서 자신의 독특한 이론을 새로 창출한 학자였다.¹⁷⁾

장현광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에게서 初學을 닦았지만 『性理大全』 등을 읽고 난 뒤 따로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⁸⁾ 이렇게 본다면 旅軒을 단순히 영남학파의 틀에 묶어두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장현광의 성리학의 관점도 이전 선학들의 것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다.

旅軒은 理와 氣를 합일적으로 것으로 본다는 면에서 理와 氣를 이원적으로 보는 퇴계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旅軒은 理와 氣를 합일적인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理가 중심이라는 것에는 퇴계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어린 시절 뚜렷한 학문적 스승을 두지 않았던 노계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성리학적 수양의 과정에서 旅軒이라는 스승을 만나게 된다. 旅軒을 노계의 학문적 스승이라 한다면 노계 역시 旅軒의 학문적 맥을 이어받았다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계의 삶에 있어 晩年의 삶에서 당대의 顯學들을 찾았던 학문적 從遊는 무엇을 의미함인가?

노계에게 있어서 다양한 작품들의 창작은 성리학적 수양의 한 방법이었다. 그것 자체가 노계가 유학을 통해 사대부로서의 정체성, 특히 文人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을 것이며, 그의 학문적 從遊는 儒者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자리잡

문, 2004)에서 노계의 독락당 방문에 대해 영남지역의 유생들이 여러 차례 벌인 '陞廡(文廟從祀)' 운동에서 찾았다. 광해군 2년(1610)에 영남지역의 유생들이 晦齋 李彦迪, 寒暄堂 金宏弼, 一蠹 鄭汝昌, 靜庵 趙光祖, 退溪 李滉 등 東方五賢의 陞廡를 단행한 것이 그 영향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17) 윤사순, 『한국유학사』 上, 지식산업사, 2012, p.365

18) 윤사순, 위의 책, p.365

고자 하는 노계의 치열한 노력의 몸부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蘆溪의 旅軒 張顯光 師承

노계는 관직에 물러난 이후인 광해군 3년(1611) 즈음 漢陰 李德馨, 寒岡 鄭述, 芝山 曹好益 등의 여러 학자들을 從遊하며, 旅軒 張顯光의 은거지였던 立巖을 찾아가기에 이른다. 당대의 큰 학자였던 旅軒으로부터 성리학의 가르침을 얻고자 찾아간 것이다.

蘆溪와 旅軒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

노계 박인로에 대해 旅軒 張顯光의 언급을 『蘆溪集』 無何翁傳九仞山記跋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사람됨은 仁義로운 사람이라. 仁은 安宅에 거하고 義는 正路에서 시작한다. 항상 夫子의 말씀을 외우고 자기를 責려하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지금 비록 늙고 병들었으나 어찌 悠悠히 세월을 보내며 초목과 함께 말라가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하루아침에 분연히 뜻을 大人의 道에 뜻을 두고 약을 캐는 것으로써 道를 삼아서, 九仞山 속을 찾아 들어가 이 산의 盡美함을 두루 보고, 또 이 산의 주인을 얻었으니 이른바 叟翁이 이 사람이라. 비록 길을 가다 만난 연분은 없으나 정성스러움은 평생의 친구와 같았다. 이에 이 산을 보고, 성인의 말씀이 가지는 비유를 깨닫고 이 사람을 얻어 先覺의 도를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였다. 서로 길을 묻고 대답하여 읊조리며 함께 돌아오니 道를 들음이 이에 있고 도를 즐기니 이에 있다. 의분을 떨쳐 밥을 먹는 것을 잊으니 늙음이 장차 이르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의 생각으로는 동방에 일찍이 없었던 호걸로 떨치는 것이 마땅하나 본성이 德을 崇高하고 소질이 학문을 좋아하며, 가난을 즐기고 스스로 분수를 지켜서 생업을 일삼지 않았다. 일찍이 무인으로 변방에서 銅符를 차고 士卒과 더불어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하였다. 義가 아니면 취하지 않았고 秋毫라도 범하지 않았으니 正聲이 자자하여 백성이 사랑하고 추대하였다.”¹⁹⁾

蘆溪에 대한 旅軒의 언급을 좀더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蘆溪集』 <行狀>에 있다.

“당시 曹芝山 張旅軒 두 현인이 초야에 문혀 도의를 강론하고 있었는데 公은 자주 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 장 선생이 公과 더불어 수일동안 지내면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無何翁은 늙고 또 병들었으나 말분하여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뜻을 대인의 도에 두었으니 동방을 떨칠 일찍이 없었던 호걸이다.”고 하면서 글을 지어 격려하였다.”²⁰⁾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헌은 노계의 학문적 스승이다. 하지만 여헌과 노계를 사제 관계로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旅軒 자신이 蘆溪를 제자로 칭한 적은 없다. 또한 노계 역시 자신을 여헌의 정식 제자였다고 직접 기록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노계가 여헌이 만나는 시점도 위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여헌이 노계를 ‘無何翁’이라 부르는 시기이다. 나이로만 짐작하여도 이미 노계의 나이 69세 이후의 時點이다. 물론 배움과 가르침에 나이가 어떤 기준이 되지는 못하지만 이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기에는 일반적 기준에서는 다소 늦은 시기이기도 했다. 다만 노계가 관직에서 은퇴하고 이후 뒤늦게 성리학에 몰두하면서 명망있는 유학자들을 찾아다니며 성리학의 수양에 정진하였던 시기에 旅軒으로부터 큰 감명을 얻어 그를 종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의 『蘆溪集』의 언급이다.

거꾸로 이 언급이 『蘆溪集』에 실려있는 것은 노계 자신이 旅軒을 학문적 스승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師弟 關係라는 것은 정식 학제나 교육기관을 통해 만나서 맺게 되는 공인된 관계도 있지만, 스승 혹은 제자 입장에서 생각하여 규정짓는 주관적 관계로서의 사제관계도 있을 수 있다. 보통 주관적 관계

19)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無何翁傳九勿山記跋(역락, 1999), p.81

20)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p.102

時芝旅兩賢林居講道 公頻往請教 張先生與語數日 歎曰 無何翁老且病 而能發憤忘食 有志大人之道 宜其爲振東方未有之人豪也 至爲文以獎之

에서의 사제관계에서는 스승된 인물이 그 관계를 드러내기 보다는 제자된 인물이 그 관계를 정리함이 자연스럽다. ‘내가 어떤 이를 스승으로 여긴다’라고 할 때에는 그 둘의 관계가 정식 학제나 교육기관을 통한 만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르침을 받은 이가 그 가르침이 어떤 경로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르침을 준 이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公은 자주 가서 가르침을 청하였다.’라는 기록 자체만으로도 蘆溪가 旅軒을 학문적 스승으로 인정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蘆溪集』에서의 언급은 비록 정식 제자는 못될지언정 노계가 스스로를 여헌의 제자였음을 자처하기 위해 드러낸 나름의 인증과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승에게 학문이나 기술을 배워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蘆溪가 旅軒을 師承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헌이 병자호란 이후 속세를 버리고 立巖으로 은거한 것은 避世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避世란 세상의 명리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 명리를 추구하는 생활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²¹⁾

명리네 쓰지업서 비오시 막더집고
 訪水尋山호야 避世臺에 드러오니
 어즈버 武陵桃源도 여기런가 호노라 ²²⁾

<立巖二十九曲 - 避世臺>

위의 시조는 노계 박인로가 여헌 장현광을 從遊하는 중 여헌이 은거하여 학문에 임하는 곳인 立巖을 노래한 28곡 가운데 避世臺를 노래한 것이다.²³⁾

21) 손오규, 『산수미학담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p.156

22)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附錄, (역락, 1999), p.191

23) 「立巖二十九曲」을 언급함에 있어 ‘立巖을 노래한 28곡 가운데’라고 언급한 이유는 작품의 구성에 있다. 이 작품은 立巖의 28景과 ‘立巖精舍’를 포함시켜 29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는 ‘立巖을 노래한 28곡 가운데’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인위적인 명칭일 뿐이다. ‘立巖29곡’이라 할 때 ‘29’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현전하는 작품수가 29首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게다가 그나마도 28景 중에서도 7首는 동일 장소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나 분류 자체가 선명치 않아서 실제로는 21景을 노래한 것이라 봐야할 것이다.

이 시조의 존재가 노계가 避世의 입장에서 立巖으로 온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노계가 立巖을 찾아온 시기는 여헌이 말하는대로 이미 ‘無何翁’이라 불리던 시기였다. 노계에서 있어 그 시기는 立身揚名の 유교적 이념을 갖고 펼치기에는 이미 晩年の 시기였다. 따라서 노계 박인로가 避世臺에서 避世를 말한다고 해서 노계 스스로가 여헌과 같이 避世의 관점으로 立巖으로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旅軒의 避世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²⁴⁾ 이것은 노계의 입장에서 여헌의 가르침에 대한 공감의 자세였을 것이다.

旅軒은 일생동안 정치에 큰 뜻을 두지 않았다. 벼슬은 멀리하되 도덕정치의 실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공신들의 횡포를 비판했다.²⁵⁾ 旅軒은 병자호란이 굴욕적인 패배로 끝나고 남한산성에서 청과의 和親으로 귀결된 것에 크게 반발하며 이를 비판하며 立巖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여헌이 입암으로 은거함은 명리를 추구하는 생활을 벗어나서 山水의 세계로의 편입이며 避世였던 것이다. 그러나 노계의 立巖行은 성리학적 수양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다. 그리고 노계에게 있어서는 立巖 자체에 대한 산수적 관점의 관상과 조망, 흥취의 의미보다는 立巖은 旅軒이 기거하는 곳이기에 가르침을 받으러 가야했던 受學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했던 것이다.

여헌이 노계에게 직접적 가르침을 준 스승이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였다고 단언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여헌이 노계에게 尊賢의 대상이었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여헌으로부터의 학문적 師事가 노계의 문학적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의 문제이다. 「立巖二十九曲」을 旅軒의 「立巖歌」에 맞추어 지은 시조라는 것은 『蘆溪集』에 기록되어 있는 바이므로 의심할 바가 없으나, 흔히 노계의 대표작이라 부를 수 있는 「陋巷詞」와 같은 작품을 여헌으로부터의 師承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노계는 은퇴 이후 유학에 대한 갈망과 지적 욕구로 인해 명망있는 유학자들을 찾아다니며 師事하는 과정에서 旅軒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음으로써 학문적 從遊의 방점이 찍혔다. 그로부터 노계 자신에게 의미있는 학문적, 문학적 성취를 이

24)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6, p.159

25) 남승도, 「노계 시가의 주제의식과 산수락 지도」,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논문, 2014, p.49

루어졌으나, 그 이전의 작품들, 특히 「陋巷詞」와 같은 작품들에 드러난 산수에 대한 독특한 蘆溪의 현실인식은 旅軒으로부터의 師承 이전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노계 시가와 작품에 드러난 현실인식의 분류는 여헌으로부터의 師承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봐야할 것이다.

Ⅲ. 蘆溪의 산수에 대한 認識

1. 생활 공간과 安貧樂道

「陋巷詞」나 「船上嘆」은 모두 노계 자신이 보고 느끼는 현장에서 노계의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陋巷詞」는 전후 돌아온 농촌 현장에서 貧寒한 삶을 살아야했던 노계의 삶을 보여주고 있으며, 「船上嘆」은 전쟁 직후 팽팽한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전장의 한복판이 그 창작의 현장이다. 노계가 그리고 있는 현장은 관념 속에서의 막연한 현장이 아닌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이며 그곳에서 보고 느낀 바에 대한 서술이다. 이는 「立巖二十九曲」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노계는 자신의 학문적 스승인 여헌을 從遊하며 立巖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道學修養을 돌아보지만, 관념적이고 이상적 세계를 막연하게 형상화하기보다 자신의 위치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진솔한 고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계 작품은 사대부로서 노계 자신의 유교적, 관념적 세계를 미사여구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장에서 느끼고 받아들인 바를 진솔하게 작품의 제재로 활용한다.

노계는 자신의 위치에서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삶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현실에 대해 직시하려는 시도를 작품 속에서 보여준다.

歸去來 歸去來 혼들 물러간 이 귀 두고며

功名이 浮雲인 줄 사람마다 알것만은
世上에 꿈 씬 이 업쓴이 그를 슬허 흐노라

李鼎輔의 이 시조는 현실정치에서 벗어나 산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거래의 노래이다. 이 작품에서 功名은 뜬 구름이다. 화자는 이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功名은 화자의 지향이었던 것이다. 사대부는 현실을 지향하며 현실 속에서 이념을 추구하는데 이는 出仕를 통해서이다. 현실 속에서 이념을 추구할 수 없을 때 현실을 떠나게 된다.²⁶⁾ 그렇게 본다면 歸去來는 사대부인 화자가 유교적 이념 실현에 있어 좌절한 결과이다. 작품 속에서 山水는 부정적 현실로부터 벗어난 관념의 공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수란 단지 부정적 현실로부터의 벗어남의 공간일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산수에서의 구체적 삶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한다.

榮中이 無事호고 時節이 三月인 제
花川 시내 길히 楓岳으로 버더 잇다
行裝을 다 썰티고 石逕의 막대 디퍼
百川洞 겨티 두고 萬瀑洞 드러가니
銀ㄱ툰 무지게 玉ㄱ툰 龍의 초리
섯돌며 썸는 소리 十里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관동별곡>

‘거추장스러운 행장은 다 떨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으며’ 떠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전에 주목할 부분은 ‘영중이 무사하고’이다. 松江이 「관동별곡」을 쓸 당시의 강원도의 현실은 형용할 수 없이 비참하였고, 송강은 분명 이

26) 이승남, 「사대부 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3, p.55

러한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관찰사의 직함을 받은 화자는 자신의 업무에서 벗어나 즐기는 공간으로서 산수를 택한 것이다. 즉 松江이 언급하는 山水의 공간은 자신의 현재의 직분이었던 관찰사로서의 직무로 바라보는 정치의 현장, 생활의 현장이 아닌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탈의 공간이다.

노계는 이런 인식과는 차별되게 자신의 공간을 삶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兵戈 五載에 敢死心을 가져 이서
履尸涉血하야 몇 百戰을 지내연고
一身이 餘暇잇사 一家를 도라보라
一奴長鬚는 奴主分을 이젓거든
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생각흐리
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논고

<陋巷詞>

‘兵戈 五載’는 노계 자신이 참전했던 임진왜란 시기의 5년이다. 그 시기를 언급함으로써 막연한 어느 시점이나 가상의 시점이 아닌 작품 속 현재 시점이 전란 이후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一奴長鬚는 奴主分을 이젓거든 / 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생각흐리 / 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논고’의 표현은 임진왜란 이후 무너진 사회 기강에 대한 언급이다. 신분제의 동요로 인해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의식주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하는 사대부의 몰락상이 작품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집권자와 사대부를 비롯한 지배층, 전란기간 동안 신분 변동의 기회를 인식하고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피지배층 사이에는 인식의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이에 따른 새로운 신분 갈등이 나타났다.²⁸⁾ 즉 피지배층들이 지배층을 더 이

27) 김현주, 「정철의 관동별곡 연구」, 세종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논문, 2002, p.38

28) 이두희, 「임진왜란기 신분변동과 民의 의식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29

상 범접할 수 없는 압력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마냥 모셔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누항사」에는 이렇게 전란 이후 달라진 시대상이 직접 고발되고 있는 현장성이 있다는 것이다.

道川 시냇가의 무하옹은	道川川上無何翁
부서진 집 두어 칸 뿐이로다	破屋數間而已矣
백발이 듬성듬성 두 귀밑을 덮으니	白髮蕭蕭被兩鬢
다만 스스로 슬피 탄식할 뿐이로다.	但自悲歎而已矣
수염 긴 늙은 종은 달아나 오지 않고	一奴長鬚走不還
맨다리 계집종 오직 하나 뿐이로다.	一婢赤脚而已矣
처량한 빈 집은 사람 없어 고요하고	淒涼虛室寂無人
어린 제비만 쌍으로 날 뿐이로다.	乳鶯雙飛而已矣 29)

<安分吟>

이 작품에서도 노계의 生活相은 여실히 드러난다. 道川(지금의 영천군 도천리)에 몇 칸짜리 초가를 마련하여 살고 있을 때, 부리던 奴僕들이 모두 달아나 오지 않고 맨다리의 계집종 하나 남아있을 뿐이라는 탄식에 그가 겪었던 가난과 노비들이 사라져버린 허망함을 엿볼 수 있다.

어리고 迂闊홀산 이너우히 더니업다
 吉凶禍福을 하늘기 부쳐두고
 陋巷 김푼곳의 草幕을 지어두고
 風朝雨夕에 석은답히 섭히되야
 셔흠밥 닷흠粥에 煙氣도 하도할샤

29)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一, 七言古詩, (역락, 1999), p.56
 時芝旅兩賢林居講道 公頻往請教 張先生與語數日 歎曰 無何翁老且病 而能發憤忘

설데인 熟冷애 빈비석일 뿐이로다
生涯이러호다 丈夫뜻을 옴길년가
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이셔
隨宜로 살려호니 날로조차 齟齬호다

<陋巷詞>

위의 글은 다시 「陋巷詞」 일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시적화자는 ‘安貧一念’ 즉 安貧樂道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이전 다른 시가 작품들에서 양반 사대부들은 安貧樂道를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초탈한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를 언급할 때 사용하였으며 그것은 고고한 정신의 경지를 드러내는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陋巷詞」에서 노계가 언급한 安貧樂道는 공허하다. 「陋巷詞」에서의 ‘安貧’은 ‘樂道’가 아닌 경제적 궁핍의 상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일 따름이다. 따라서 ‘날로조차 齟齬호다’라는 탄식은 오히려 궁핍한 현실에 대한 인정이며 체념적 수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노동 공간과 경제적 궁핍

고전시가의 여러 문인들 중 蘆溪만이 가난의 주인공이지는 않다. 그리고 노계의 삶의 시기는 전란의 후유증으로 인해 거의 모든 백성들이 경제적, 사회적 곤란을 겪고 있던 시기이다. 하지만 노계처럼 사대부의 노동과 경제적 궁핍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은 드물다. 또한 노계처럼 실제 생활의 일상을 통해 시대적 모순과 부조리를 폭로하는 비판의식은 그 예를 찾기 어렵다.

「陋巷詞」에서 궁핍함은 양반들의 관념적 안빈낙도의 멋스러움이 아닌 절실한 실제적 어려움으로 묘사된다. 그리고 작품에 그려진 궁핍은 화자 자신만이 아닌 당시 서민들의 공통의 아픔이었다. 노계가 겪었던 아픔은 개인의 나태함이나 안일한 현실인식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 사회, 정쟁, 전란과 같은 사회적 상황의

산물이다.

노계에게 있어 산수는 경제적 궁핍에 맞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공간이었으며 자신의 삶의 위치를 확인하는 현장이었다. 그 속에서 노계는 사대부로서의 계급의식을 가졌지만 현실에서 궁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했던 생활인이었다.

또한 노계는 사대부이다. 하지만 사대부의 일반적인 삶처럼 노동과는 동떨어진 유유자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인물은 아니다. 따라서 노계에게 있어 산수는 유유자적한 삶의 배경이 아닌 먹고사는 문제가 달린 생존과 노동의 공간일 수 밖에 없었다.

躬耕稼穡이 니 分인 줄 알리로다
莘野耕叟와 壟上耕翁을
賤타 흐리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들 어니 쇼로 갈로손고

위의 글은 「陋巷詞」의 일부이다. 여기서 화자는 ‘躬耕稼穡이 니 分’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자신이 직접 노동의 현장에 나서야 함을 인식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런 현실 인식과는 달리 ‘어니 쇼로 갈로손고’라 하며 소가 없어 받을 갈 수 없는 궁핍한 상황을 말한다. 노계는 이렇게 마음먹은 것과 달리 경제적 궁핍으로 노동조차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한탄을 하고 있다.

노계에게 있어 산수는 이전의 다양한 양반사대부의 산수가사처럼 관조의 대상과 유희의 공간이 아니라 노동의 공간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계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할 수 없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직면한 몰락향반이었다. 게다가 「누항사」 같은 작품에서는 ‘一奴長鬚는 奴主分을 이젓거든 / 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싱각흐리 / 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늘고’ 라 하며 자신이 부리던 노비들에게도 그 관계를 부정당하며 자신이 직접 경작에 나서야 하는 수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노고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기 보다는 ‘躬耕稼穡이 너 分인
줄 알리로다’ 라고 하며 자신이 직접 노동의 현장에 뛰어든다.

松竹 鬱鬱裏에 風月主人 되어서라
柴扉에 거러보고 亭子에 안자보니
逍遙吟詠호야 山日이 寂寂헌디
閒中眞味를 알니업시 호재로다
아침에 採山호고 나조히 釣水호새
小童 아히드려 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微吟緩步호야 시냇그의 호자안자
明沙 조흔물에 잔시어 부어들고
淸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桃花 | 로다
武陵이 갓갑도다 저미이 권거인고

<賞春曲>

봄날 하루 화자의 생활을 이것저것 다 늘어놓은 진술은 화자가 산수를 유희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한다. 화자의 하루동안의 이러저러한 행위를 나열했지만 그것은 ‘일’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아니다. 아침에 나물을 캐고 저녁에 낚시를 하는 것도 딱히 생존을 위한 노동이라는 근거가 없다. 만약 그것이 생존을 위한 노동의 일환이었다면 이 진술에는 그 결과물에 대한 언급이 따라왔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것보다 술을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무릉도원을 꿈꾸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즉 화자가 있는 산수라는 공간은 노동과 관계없는 공간이며 노동을 잊게 하는 공간이었다.

人間을 썬나와도 내몸이 겨를업다

니것도 보려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혀려호고 돌도 마즈려코
 봄으런 언제줍고 고기란 언제낙고
 柴扉란 뉘다드며 던곳츠란 뉘쓸려노
 아침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나
 오늘리 不足거니 내일리라 有餘호라
 이피히 안즈보고 저피히 거러보니
 煩勞흔 ㅁ음의 ㅁ릴일리 아조업다
 쉼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야
 다만 혼 靑黎杖이 다피되여 가노미라

<俛仰亭歌>

이 작품에서 화자가 인간세상을 떠나와도 여유가 없는 것은 산수를 즐기느라 바빠서 그런 것이다. 아침부터 바쁜데 저녁이라고 여유가 생길 리 없으며, 오늘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넉넉할 것인가라고 하며 자신의 분주함을 토로한다. 심지어 여기저기 나다니며 함께 한 지팡이가 다 닳아갈 정도로 분주한 삶을 산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그것은 산수를 즐기고자 하는 조급함이 빚어낸 행동이지 노동의 범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 세상의 명리를 떠나와도 화자가 바쁜 것은 이미 그 名利를 버렸음을 뜻한다.³⁰⁾ 이미 화자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속세를 버림으로써 산수를 유희의 공간으로서만 인식한다. 따라서 화자의 머리 속에는 세속의 갈등이 없으며 그래서 택한 산수의 공간은 즐거움만 안겨주는 이상적이며 관념적 공간이 된다.

그러나 노계에게 있어 山水는 ‘躬耕稼穡이 너 分인 줄 알리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노동을 받아들이는 삶의 현장이면서 생존을 위한 노동의 공간이었다.

30) 이승남, 『사대부 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3, p.145

3. 修養 공간과 現實超脫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수양은 산수에 은거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는 晩年の 노계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특히 노계가 학문적 從遊의 과정에서 旅軒 張顯光을 찾아 立巖으로 온 것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江頭에 屹立하니 仰之에 더욱 높다
風霜에 不變하니 讚之에 더욱 굿다
사람도 이바회 못하면 大丈夫인가 호노라 31)
〈立巖〉

이 작품에서 노계는 ‘風霜에 不變’하는 바위를 대장부의 기상에 비유한다. 노계가 말하는 ‘大丈夫’란 어떤 인간상일까? 유학에서 말하는 대장부는 개인의 도덕적 삶을 위한 수양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이상적 인간형을 말한다. 修己治人을 지향하며 외부적 무지와 어리석음, 유혹과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난 자율적이며 도덕적 주체로서의 이상적 인간형을 孔子는 君子로, 孟子는 大丈夫로 지칭하였다. 따라서 노계가 말하는 대장부는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형으로서의 인간형이었으며 노계가 晩年 성리학의 수양 과정에서의 도달하고자 했던 지향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平生 恨 뜻이 溫飽애는 업노왜라
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 信朋友 외다 ㅎ리 ㄴ이시리

31)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附錄, (역락, 1999), p.187

그 빛과 남은 일이야 삼긴 더로 살렷노라

<陋巷詞>

華山이 어디오 이말을 보내고져

天山이 어디오 이활을 노피거자

이제야 헝울일이 忠孝一事 뿐이로다

營中에 일이업서 긴증드러 누어시니

못노라 이날이 어너적고

<太平詞>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忠孝’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계는 작품 내에서 줄곧 유교적 윤리를 거론한다. 그것이 노계가 가지고 있던 사대부로서, 혹은 儒子로서의 관념적 의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에서 언급한 유교적 이상형 인간인 ‘大丈夫’에 대한 지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펼쳐질만한 배경이 노계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그런 결핍을 노계는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여러 현인과 학자들을 從遊하면서 도학의 수양에 힘쓰며 해소하려고 했다.

靑蘿를 헤혀드러 獨樂堂을 여러니니

幽閑 景致는 견홀디 너야업니

(중략)

嚴子陵이 어너희에 漢室로 가단말고

苔深磯上에 暮烟만 좀겨서라

(중략)

桃花洞 느린물리 不捨晝夜헝야

落花조차 흘러오니

天台근가 武陵인가 이짜히 어던게오

仙蹤이 아득하니 아모던줄 모르로다
 仁者도 아닌몸이 르슴 理를 알리마는
 樂山忘歸호야 奇巖을 다시비겨
 川原遠近에 景致를 살펴보니
 萬紫千紅은 비닷빛치 되어잇고
 衆卉群芳은 谷風에 놀러오고
 山寺鐘聲은 구름 맞기 들리는다 32)

<獨樂堂>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獨樂堂」은 노계가 晦齋 李彦迪의 유적을 찾아가서 그 감회를 글로 남긴 것이다. 晦齋의 자취를 仙蹤이라 표현한 것은 晦齋 先生을 神仙으로 받아들이고 선생을 본받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나타낸다.³³⁾ 노계도 참다운 산수에 귀의하여 物我一體가 되어 세상을 초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학문적 수양으로 얻고자 하는 경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언급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는 입신의 길에서 벗어나 학문수양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고자 했던 노계의 현실초탈의 자세를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화 아흐들아 후리치고 가자스라
 田園이 뷔엇거니
 엇지 아니 가로소냐
 道川上 明月淸風이 날 기드리기 오리니라

<蘆州幽居>

이 작품은 노계가 세속의 명리를 떠나서 蘆州에 돌아가 閑居하고자 하는 심정

32)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역락, 1999), p.165~168

33) 김경량, 「노계시가에 나타난 사상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61

을 노래한 것으로 陶淵明의 「歸去來辭」의 虛頭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³⁴⁾ 蘆州는 蘆溪가 벼슬에서 물러나 晩年에 집을 짓고 無爲自然하며 신선같은 삶을 꿈꾸었던 곳이다. 여기서도 노계는 산수에 한가히 묻혀 지내고자 하는 현실초탈의 인식을 보인다.

노계에게 있어 앞에서 언급한 ‘大丈夫’다운 삶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학문적 수양에 힘쓰며 현실에서 벗어난 또다른 정신적 경지를 열고자 했던 修己治人の 삶이었을 것이다. 이는 노계가 입신과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림으로써 얻게 된 경지이고 곧 수양과 현실초탈의 인식이었던 것이다.

노계의 작품에는 산수에 귀의하여 인간세속을 떠나 선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가 담긴 내용이 많다. 그리고 그런 경향의 작품 상당수가 노계가 벼슬에서 물러난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旅軒으로부터의 師事 이후라는 것은 노계가 학문적 수양에 정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IV. 蘆溪 詩歌의 現實認識과 寫實性

노계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松江, 孤山과 함께 ‘近世 3代 詩歌人’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여러 연구를 통해 이전의 다소 인식했던 평가에 비해 긍정적 평가를 꾸준히 얻어가고 있다.

노계의 작가, 문인으로서의 활약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40세 이후이다. 「太平詞」가 38세에 쓴 작품인 것을 제외하면, 「早紅梯歌」를 41세에, 「船上嘆」은 45세에 지어진 작품이다. 「陋巷詞」는 51세에 지어진 작품이며, 『蘆溪集』에 수록된 작품 중 상당수는 武人으로서 관직에서 은퇴한 이후의 작품이다.

따라서 노계의 삶을 출생 이후부터 出仕 이전을 1기로, 출사기를 2기로,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의 삶을 3기로 하여 삶을 세 시기로 분류하되 문인으로서의 노

34) 김경량, 「노계시가에 나타난 사상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p.63

계의 삶은 관직에서 은퇴한 이후를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문인으로서의 노계를 구분지어 생각한다고 볼 때, 노계의 작품에서 전반부의 작품들이 유교적 관념을 노래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유교적 관념, 채색이 덧입혀지던 시기는 旅軒으로부터의 師事 이후라고 봐야할 것이다. 여현으로부터의 사사 이후의 작품은 되려 노계가 가진 개성 혹은 현실인식이 다소 열어진 시기일 수 있지만 반면 학문적 도야를 이룬 시기였던 만큼 그 관념의 깊이는 깊어진 시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계의 작품은 큰 줄기에서 여현의 사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보고 작품에 드러난 현실인식과 산수에 드러난 갈등 의식도 그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노계의 갈등 의식은 조선 전기의 사대부 가사들에 드러난 갈등 의식과는 차이가 있다. 벼슬을 통해 관직으로 나아가느냐 자연에 은거하여 속세와 차별된 별개의 삶을 살아가느냐의 이원적 산수관에서 비롯된 갈등과는 다른 양상을 노계의 시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사대부가사에서의 갈등 의식은 出仕냐 아니냐라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유교적 이념의 본질에 대한 추구하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 실현이라는 문제이다. 즉 조선 전기 사대부가사에서의 갈등 의식은 유교적 이념 속에서의 갈등 의식이다.

그러나 노계의 갈등 의식은 그것과는 양상이 다른 것이다. 노계의 갈등 의식의 양상은 유교적 이념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관념과 유교적 이념의 지향이 가로막힌 서민으로서의 현실의 충돌이다.

1. 「陋巷詞」에 나타난 농촌의 경제적 궁핍

「陋巷詞」는 알려진대로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경기도 용진에서 생활하던 때, 한음 이덕형이 방문하여 두메 생활의 처지를 묻자 이에 대해 답으로 지은 가

사이다.

우선 「陋巷詞」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자.

서사에서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기고 安貧一念으로 살려는 심정을 노래한다.

본사에서는 첫번째로 백전고투했던 왜란 참전기를 회상한다. 두 번째 내용으로 전란 후 돌아와 노비와 주인의 도가 무너졌음을 확인하고 몸소 농사를 지어야 함을 표현하고 세 번째 내용으로 금방 내린 반가운 비를 보고 소가 없어 소를 빌리러 간다. 네 번째로 소를 빌리러 갔다가 사대부로서 겪기 힘든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고, 다섯 번째로 집에 돌아와 야박한 세태를 한탄하며 춘경을 포기한다.

결사 부분에서는 자연을 벗삼으면서 절로 늙기를 소망하며, 貧而無怨하고 簞食瓢飲을 만족하게 여기면서 忠孝, 和兄弟, 信朋友를 다짐한다.

그러나 이런 마음과는 다르게 글 전체 내용 구석구석엔 안빈낙도를 꿈꾸는 유교적 가치관을 실현하려 하지만 한편 그런 생활을 누리기 힘든 경제적 궁핍사에서 오는 갈등이 보인다.

「陋巷詞」는 전란 이후 조선 사회의 신분적 질서의 몰락과 전국가적 궁핍의 상황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솔하게 담아내었다. 이는 조선 전기 가사의 유교적 관념성을 탈피하여 조선 전기 가사와는 다른 조선 후기 가사의 작품 의식의 새로운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陋巷詞」에 나타난 경제적 궁핍에 대한 신랄한 묘사와 산수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임진왜란 이후의 몰락 향반으로서의 신분적, 경제적 현실과 양반 사대부로서 갖고자 했던 유교적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생긴 갈등의 표출이었다.

「陋巷詞」에 드러난 사대부로서의 이념적 지향을 보이는 표현들은 입신을 통한 사회적 성공을 통해 사대부로서의 삶을 동경하고 실현하려 하였지만, 정치 무대의 진출에 소외된 향반 집안 출신에다가 전쟁의 현실이 었어지면서 자신의 동경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노계의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蘆溪는 스스로 유교적 통치이념의 실현을 추구했던 士大夫이면서 儒子였다. 즉 신분적으로 지배의식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戰亂이라는 현실에서 가난과 피폐함을 정면으로 맞게 된 백성으로 피지배인으로서 아픔과도 직면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작품 속에서 보이는 사대부로서의 언어, 이념적 지향들은 다소 현실성이 없다.

그것은 정극인의 「賞春曲」이 보여주는 산수 속에서의 한미함이나, 정철의 「成山別曲」에서 보여지는 중앙 진출의 욕구도 아니었으며, 윤선도의 「漫興」처럼 安貧樂道라는 이념적 구호와도 같지 않은 것이었다.

「陋巷詞」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난’이라는 관점에서의 ‘강호’에 대한 인식이다. 그 부분에서 노계가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에 가졌던 현실인식이 선명해진다.

「陋巷詞」에서 ‘가난’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다.³⁵⁾ 노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하는 현실적 곤궁을 작품에서 드러내고 이전 조선전기 가사에서 관습적으로 드러나던 안식과 평온, 풍류의 공간으로 그려지던 강호를 현실적 곤궁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이전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시선이다.

조선의 사대부에게 있어 ‘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성리학과 양반으로서의 계급의식에 대한 방어적 의식이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였다.

燕巖 朴趾源은 「兩班傳」에서 ‘忽餓而寒 口不說貧’ 즉 양반은 굶주림과 추위를 가볍게 여기고, 가난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陋巷詞」에서 노계의 노골적인 가난에 대한 한탄은 당시의 관점에서 파격적이다.

「陋巷詞」 후반부에 보여지는 망신스러운 상황과 그로 인한 좌절은 양반으로서의 체면의 상실이며 이를 직접 문학작품에서 언급하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금

35) 「陋巷詞」에 형상화된 가난은 한창훈(「박인로·정훈 시가의 현실인식과 지향」(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3, p.50~56)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자가 박인로 자신의 처리로 보았다. 그러나 이동찬과 최현재(이동찬, 「<누항사>에 나타난 사족의 가난체험과 의식의 변화」, 『한국민족문화』14-1,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9, p.61, /최현재, 「在地士族으로서 朴仁老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9, 국문학회, 2003, p.185~194)는 박인로의 경험이 아니라고 보았다. 김용철은 박인로 자신을 포함하여 몰락해가는 남인의 형편에 대한 우의라고 파악하였다.(김용철, 「<陋巷詞>의 자영농 형상과 17세기 자영농 시가의 성립」, 『한국가사문학연구』, 집문당, 1996, p.227~275)

한편 최근까지도 <누항사>에 형상화된 가난을 박인로 자신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박현숙, 「박인로의 <누항사>연구」, 『국어국문학』157, 국어국문학회, 2011, p.94~97)와 “나라 전체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경제적 궁핍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서술한 것”이라는 견해(김광조, 「<누항사>에 나타난 ‘歎窮’의 意味」, 『고전과 해석』2,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p.50)가 제출된 바 있다.

기의 파괴이다. 이에 대해 최상은(1985)은 ‘양반이지만 양반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작가 박인로의 시대에 대한 한탄이며, 당위와 실제의 엇갈림에서 나온 고민’이라고 한다.³⁶⁾ 따라서 노계의 이런 과감한 표현의 배경은 양반 사대부로서의 자의식과 현실적 곤궁함이라는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의식의 표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리고 迂闊홀산 이너우히 더니업다
 吉凶禍福을 하늘기 부쳐두고
 陋巷 김푼곳의 草幕을 지어두고
 風朝雨夕에 석은 답히 접히되야
 서흡밥 닷흡 粥에 煙氣도 하도할샤
 설데인 熟冷애 빈 비 석일 뿐이로다
 生涯 이러흐다 丈夫 뜻을 움길넌가
 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이셔
 隨宜로 살려흐니 날로조차 齟齬흐다

이 작품은 자연에 은일하는 태도를 드러내면서도 가난한 현실의 어려운 생활상을 생동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 부분은 화자의 한탄으로 시작한다. 가난한 자신의 상황과 이에 대한 좌절감을 ‘어리고 迂闊’하다고 전면에서 드러내고 있다. ‘迂闊’이라는 표현에 대해 김유경은 ‘궁핍을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³⁷⁾이라고 말하며 일종의 자기 부족에 대한 자기비하로 보았다. 작품의 제목인 「陋巷詞」도 누추한 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드러난다. ‘生涯이러흐다 ~ 隨宜로 살려흐니 날로조차 齟齬흐다’는 전란 후의 궁핍한 사회에서 선비들이 겪는 괴리감을 보여준다. 여기

36) 최상은, 「노계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37) 김유경, 「<누항사>에 나타난 사실주의 양상」, 『연세어문학』24, 연세대 국문과, 1992, p.54

서의 괴리감이란 궁핍한 생계와 안분지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隨宜’ 사이에서의 거리이다. 궁핍의 문제를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되 정신적으로 치장하여 安貧樂道の 이념을 칠하느냐 하는 갈등의식이 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陋巷詞」에서의 ‘安貧’은 ‘樂道’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노계가 말하는 安貧一念은 경제적 궁핍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자세이자 노력이지만 ‘적을망정’이라며 그 의식조차도 희미함을 은연 중에 드러낸다.

‘날로조차 齷齪하다’는 그런 갈등 사이에서 안빈낙도의 신념으로 사는 것이 어려움을 고백하는 부분이다. 동시에 작품 전반에 드러난 화자의 패배감이자 좌절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ㄴ을히 不足거든 봄이라 有餘호며
 주머니 뷔였거든 甁이라 담겨시라
 貧困한 人生이 天地間의 나쁜이라
 飢寒이 切身하다 一丹心을 이질논가
 奮義忘身호야 죽어야 말녀 너겨
 于橐于橐의 줌줌이 모와 녀코
 兵戈 五載에 敢死心을 가져 이셔
 履尸涉血호야 몇 百戰을 지니연고

여기서는 ‘주머니 뷔였거든 甁이라 담겨시라’라며 춘궁기의 궁핍함을 설의적으로 드러낸다. 궁핍함에 대해 여실히 고백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이는 「선상탄」에서 보여지는 무인으로서의 당당한 기상과는 차별되는 나약함이다. ‘奮義忘身호야 ~ 履尸涉血호야 몇 百戰을 지니연고’ 부분은 화자가 5년 동안 임진왜란에 참전한 경험에 대한 언급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현재 노계가 겪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자신의 불우함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생긴 급격한 변화였음을 보여주는 標識이다. 이것은 노계의 현실인식이며 곧 寫實性이다.

一身이 餘暇잇사 一家를 도라보라
 一奴長鬚는 奴主分을 이겼거든
 告余春及을 어니 사이 싱각흐리
 耕當問奴인들 놀드려 물물논고
 躬耕稼穡이 니 分인 줄 알리로다
 莘野耕叟와 壟上耕翁을
 賤타 흐리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들 어니 쇼로 갈로손고

긴 수염의 늙은 종은 이제 이전과 같이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노계는 ‘奴主分’을 언급하며 이를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결국 주인이 자신을 받들지 않는 종을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지만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 사회를 지탱했던 신분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임진왜란 중의 혼란상을 그리는 기록 등을 통해 양민과 천민,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여 자신들도 장차 양반이 될 수 있는, 지배계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식하고 기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전란의 상황은 노비들이 주인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했다. 그러나 피지배층의 의식이 바뀐 것에 비해 양반 사대부들의 인식은 전란 이전의 상황과 달라지지 않았다. ‘奴主分을 이겼거든’이라는 언급은 화자는 아직 신분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노비들이 주인을 섬기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힘과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이를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임진왜란은 조선시대 사회적 성격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대사건이었다. 전쟁 중 국가는 무기력했고 국가로 대변되는 양반 지도층들은 민중들을 보호해주지

38) 이두희, 「임진왜란기 신분 변동과 民의 의식 변화」,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p.39

못했다.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사회적 수습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백성들의 자의식 성장은 당연한 결과였다. 스스로 自生力을 키워낼 수 밖에 없었고, 자신의 힘이 길러진 상황에서 신분제는 단순 자신들을 옹아매는 밋줄이었을 뿐이다. 신분제의 균열은 예견된 결과였다.

그런 신분제의 균열 양상이 작품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신분제의 균열은 양반사대부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다시 읽어내게 했다. 노계 역시도 그런 현실 속에서 사대부로서 계급 의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수 밖에 없었고 ‘너 分’을 언급하며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대목에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신야경수(莘野耕叟)³⁹⁾와 ‘농상경옹(壟上耕翁)⁴⁰⁾의 고사이다. 이 두 고사의 주인공들은 儒子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농사를 지었던 인물들이지만 유교적 관념에서의 立身揚名을 달성한 사람들이다. 화자는 두 고사를 통해 신분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궁핍한 현실살이에 좌절하기 보다 두 재상의 행적으로 의미를 채색함으로써 유학자로서의 이념적 지향을 보인 부분인 것이다.

旱既太甚 旱야 時節이 다느즌제
 西疇 曠 旱논에 잠산긴 널비에
 道上 無源水을 반만싼 디혀두고
 韶 軒적 芻마 旱고 絜 穞이 旱 논말삼
 親切호라 너건집의 달업슨 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구디다든 門 밧기 어득히 혼자서서
 큰기춤 아함이를 良久토록 旱 昏後에

살짝 내린 비에 급하게 밧을 갈고자 이전에 살짝 뜻을 보인 집에 소를 빌리러

39) 잡초 많은 들에서 밧 갈다가 탕왕이 세 번 불러서 벼슬길에 나가 하(夏)와 결(桀)을 치고 은(殷)을 세워 명재상이 된 이윤을 말한다.

40) 밧둑에서 밧을 갈다가 명재상이 된 진(秦)나라 진승을 말한다. 혹은 유비의 三顧草廬로 유명한 蜀漢의 재상 제갈량을 말한다는 설과 동한(東漢)의 방덕공(龐德公)을 말한다는 설도 있다.

달 없는 황혼에 허겁지겁 달려가는 화자의 다급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런 다급한 속내와는 달리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며 굳게 닫힌 문 밖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현실 속에서 내세울 수 없었던 양반의식이 화자에게는 남아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양반의식을 내세워 당차게 요구하기도 어려운 것은 양반으로서의 관념과 경제적 궁핍함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沈着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화자의 위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는 화자가 신분적으로 사대부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사대부라 할 수 없는 궁핍한 백성의 삶 자체를 살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어화 귀 뒤신고 廉恥업산 너옴노라
 初更도 거윈디 귀 엇지와 겨신고
 年年에 이러헝기 苟且흔 줄 알건만는
 쇼 업슨 窮家에 혜염 만하 왓삼노라
 공헝나나 갑시나 주업죽도 헝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집 저 사람이
 목 불근 수기雉을 玉脂泣게 꾸어너고
 간이근 三亥酒을 醉토록 勸헝거든
 이러한 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넝고
 來日로 주마헝고 큰 言約 헝야거든
 失約이 未便헝니 사설이 어려왜라
 實爲 그리헝면 헝마 어이할고
 현면덕 수기스고 측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오니
 風彩저근 形容에 기즈칠 썬이로다

이 부분은 소 주인과 화자의 대화를 현실 생활의 구체적 재현으로, 가사의 서사화라는 변화의 근거라 평가⁴¹⁾되는 부분이다. 살짝 내린 비에 허겁지겁 소를 빌

41) 이승남, 「누항사의 갈등 표출 현실 묘사와 강호 인식」,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화연구

리러 간 화자는 결과적으로 소 빌리기에 실패한다. 그 과정은 사대부인 화자에게는 다분히 굴욕적인 상황이다. 게다가 소 주인이 소 빌리기를 거절하는 핑계는 소 빌리기를 청하는 건넛집 사람이 구슬같은 기름이 흐르는 꿩과 삼해주를 대접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의를 중시하는 유교적 관념을 갖고 있는 화자에게 이미 본인의 약속이 선약이었는데도 약속이 거절된 점, 그리고 거절의 사유가 자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물질적 보상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가치관에 완전히 반하는 상황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소를 빌리지 못했다는 상황에 대한 좌절을 넘어서는 굴욕이었다. 게다가 소 주인은 화자가 농사일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을 특이한 상황으로 인식하는 부분으로 유추하건데 農牛로 직접 농사를 짓는 인물이고 따라서 사대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신분의 高下와 관계없이 벌어진 이 상황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신분의 逆轉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失約이 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워라’라는 푸념은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체념과 무기력함이다. 그런 화자의 무기력과 절망감을 개가 짚어대며 비참함을 더한다.

蝸室에 드리간들 잠이와사 누어시라
 北窓을 비겨안자 시비를 기다리니
 無情헌 戴勝은 이니恨을 도우느다
 終朝惆悵하며 먼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農歌도 興업서 들리느다
 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줄을 모르느다
 아쓰온 저소뵈는 벗보님도 도홀세고
 가시영권 묵은 밧도 容易케 갈련마는
 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두자

이 부분은 화자가 느끼는 비참함이 가장 극에 달하는 부분이다. 화자는 蝸室에

드러간들 잠이 오지 않으며, 야박한 세태를 한탄하고 春耕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戴勝 즉 오디새는 화자의 한을 도우며,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즐기는 農歌’이다. 화자와는 달리 화자의 현장은 노동의 열기로 가득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노동의 소외이며 일반적 향촌 사회의 흐름을 타지 못한 패배자의 모습이다.

江湖 흔숨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口腹이 爲累호야 어지버 이저찌다
瞻彼淇澳혼디 綠竹도 하도할샤
有斐 君子들아 낙디호나 빌려스라
蘆花 김픈곳애 明月淸風 벗이되야
넘지업슨 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無心호 白鷗야 오라호며 말라호라
다토리 업슬슨 다문인가 너기로라

‘江湖 흔숨을 꾸언지도 오리러니 口腹이 爲累호야 어지버 이저찌다’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自嘆이다. 화자는 ‘江湖 흔숨’을 언급한다. 이는 양반 사대부들의 의식적 지향이며, 관습적 표현이다. 게다가 낚시대를 빌려 풍월강산에서 절로 들어가겠노라고 선언한다. 이는 화자가 처한 경제적 궁핍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 현실에서 벌어진 경제적 곤궁에 임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또다른 대안을 찾아야할 화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가롭고 본질에서 벗어난 대처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대부들은 강호, 즉 산수를 성리학적 질서의 구현된 완전한 이상으로 인식했었다. 따라서 사대부들에게 있어 산수에 대한 추구와 지향은 자신들의 성리학적 이상의 추구하고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이 부분에서 나온 화자의 태도는 분명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다. 경제적 궁핍에 처한 사람이라면 응당 그 궁핍을 해결하고 자신의 먹거리를 마련하는데 몰두하

는 것이 당연한 태도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가난’이 실제의 경제적 곤란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비유이며 실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소외의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도출되는 것이다.

無狀한 이 몸애 무산 志趣 이스리마난
두세 이렇 밧논을 다 무겨 더져 두고
이시면 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내 貧賤 슬히 너겨 손을 혜다 물러가며
남의 富貴를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라
人間 어내 일이 命 밧기 삼겨시리
貧而無怨을 어렵다 흐건마는
니 生涯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飲을 이도 足히 너기로라
平生 흐 뜻이 濫飽애는 업노왜라
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 信朋友 외다 흐리 뉘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더로 살렸노라

이 부분에서 주목할 내용은 ‘忠孝를 일을 삼아’이다. 박인로가 생각하는 충효는 애국애족의 실천의 방향이었을 것이다.

華山이 어더오 이말을 보내고져
天山이 어더오 이활을 노피거자
이제야 흐올일이 忠孝一事 뿐이로다
營中에 일이업서 긴즈드러 누어시니

못노라 이날이 어니적이고

<太平詞>

「太平詞」에서도 ‘忠孝一事’를 언급한다. 조선조 시대에 있어서 忠孝는 유교적 이념의 핵심이었다. 儒子の 윤리규범은 五倫으로 집약되고 그 五倫의 핵심은 곧 忠孝였다.

노계의 작품에서 충효가 높은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순수함에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계는 정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도 아니고 또 입신을 큰 가치로崇尚했던 인물은 아니었던 듯하다. 따라서 노계가 언급한 忠孝는 입신의 수단이나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닌 순수한 국가를 위한 윤리이자 가정을 위한 지향이었던 것이다.

「陋巷詞」에서 ‘가난’을 직접 표현한 용어는 ‘安貧’, ‘貧困’, ‘貧賤’, ‘貧而無怨’, ‘飢寒’, ‘簞食瓢飲’ 등이다. 이 중 ‘安貧’, ‘貧而無怨’, ‘簞食瓢飲’ 등은 『論語』에 나온 표현이다.⁴²⁾

이에 ‘가난’의 의미를 단순히 경제적 궁핍에 대한 언급이 아닌 다른 의미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는 관점도 있다. 박연호는 ‘『논어』와 『맹자』의 가난에 관한 용례를 인용하며 ‘가난’의 의미를 ‘窮’은 경제적 궁핍보다는 세상에 나아가 자신의 도를 펴지 못하는 정치적 소외상태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⁴³⁾

노계의 시조는 전시기 사대부 강호시조의 전형으로서의 전범적 자연관과 흥취·일락의 절제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술과 취락이 아닌 전원의 구체적 생활 체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강호와 정치 현실을 구분하거나 세속적인 영달과 현실 정치에 대한 거부나 비판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⁴⁴⁾

「노계가」에서 화자가 드러내 보이고 있는 安貧樂道の 태도에 대해 유가적 당위와 궁핍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항반 박인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안빈낙도를 지향했다고 파악하는 견해⁴⁵⁾, 사회적 지위, 가문, 경제 상태, 학문적 업

42) 박연호,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활’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4호, p.345

43) 박연호, 위의 글, p.350

44) 이승남, 「누항사의 갈등 표출 현실 묘사와 강호 인식」, 『동국대 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화연구 25, p.239

적 등에서 뚜렷이 내세울 게 없었던 박인로에게 문학은 실존을 확인하는 방식이며 그의 작품에 나타난 안빈사상, 자연애 사상은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주어진 가난과 자연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46), 그의 가난한 현실이 안빈낙도라는 이념적 구호를 공허하게 만드는 견해47), 농민의 대변자적 위치에서 농민의 생활상과 농촌사회 현실에 대한 관심의 발로로 보는 견해48), 심지어는 貧而無怨이라 하지만 「누항사」에서 박인로가 자신의 가난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사상도 僞作이 아닌가 느껴진다고 하는 견해49), 자연을 조화롭고 균형이 잡힌 이상세계의 원형으로 이해하는 대지주 출신 양반 사대부의 자연인식과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생산현장의 토대로서 인식하는 자영소지주 출신 몰락양반의 자연인식이 공존해 있다는 보는 견해50), 자연 속에서 山中百物을 소유하며 사는 것이 노계의 생활이지만 당시 사대부들처럼 田莊을 배경으로 해서 江湖歌道를 향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51), 가난은 외부적 강요에 의한 생활현실 이었고 관념성은 가난에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실제적 삶의 방식이었다고 파악하는 견해52)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항사」에 드러난 ‘가난’의 상태는 경제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작품이 벼슬에서 물러난 이후라는 점, 그 시기가 전란 이후의 상황이라는 점, 전란의 시기에 참전하여 박인로가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전란 이후 총체적으로 흔들린 사회적 기반과 신분제의 균열 등은 노계가 「누항사」에서 언급한 가난을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겠다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안은 더욱 영락해지고 거처는 비바람도 가릴 수가 없었다. 흉년이 드는 해에는 끼니도 잇지 못할 때가 있었다.”53)

45) 우응순, 「박인로의 ‘安貧樂道’意識과 自然」, 『한국학보』41, 일지사, 1985 겨울
 46) 성범중, 「노계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94, 국어국문학회, 1985
 47) 이승남, 「누항사의 갈등 표출」, 『한국문학연구』25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2
 48) 김기탁, 「노계가사의 현실인식」, 『한민족어문학』7, 한국어문학회, 1980
 49) 황충기, 「노계 박인로론」, 『어문연구』38, 1983
 50) 서종문, 「박인로 문학세계의 현실적 토대와 세계인식」, 『지역사회와 민족운동』창간호, 지방사회연구회, 1987
 51) 김기탁, 「<노계가>의 이해」, 『한민족어문학』13, 한민족어문학회, 1986
 52) 최상은, 「노계가사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한국시가연구』제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53)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卷二, 附錄, 行狀(역락, 1999), p.102

위의 글은 『蘆溪集』 2권 <行狀> 부분에 나온 언급이다. 행장이 죽은 사람의 행실을 간명하게 써서 보는 이로 하여금 죽은 사람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는 글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陋巷詞」에서의 가난을 노계 자신이 겪은 실제적 경험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할 듯하다. 특히 ‘더욱 영락해지고’라는 표현은 이미 노계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이 부분도 역시 노계가 작품에서 거론하는 가난이 실질적 가난이었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누항사」에 드러난 가난한 현실은 화자가 가진 사대부로서의 유교적 이념을 내려놓을 수 밖에 없게 했다. 노비와 주인 사이의 주종관계 혹은 신분적 질서의 붕괴, 사대부가 직접 받을 갈아야 할 정도의 전란 이후의 경제적 피폐, 소를 빌려주겠다던 이웃민에게 겪었던 인간적 신뢰의 훼손 등은 유교적 이념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던 사대부의 이타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조건이었다.

노계의 시조는 술과 醉樂에 관한 표현이 한 작품에도 나타나 있지 않고,⁵⁴⁾ 탈생활적 관조성의 약화로 인해 전원 생활의 구체성이 새로운 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 이러한 관심은 감흥·일락의 적극적 표출과 동반되지 않는, 다른 시조 작가의 시조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⁵⁵⁾

「누항사」에 대해 조동일은 “사대부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농민으로 살아가는 데 만족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양쪽에서 소외되어 있는 괴로움을 절실하게 그렸다.”⁵⁶⁾라고 평가한다.

「論語」에는 ‘가난하면 怨望이 없기는 어렵고, 富하면 교만이 없기가 어렵다.’⁵⁷⁾라고 말한다. 이는 安貧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다.

「누항사」는 결국 현실적 가난 속에서 양반사대부가 계급의식을 버리지 않음

以此家益落 所居不蔽風雨 歲儉蔬糲或不繼

54) 김흥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35, p.219

55) 김흥규, 위의 글, p.228

5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3판)』3, 지식산업사, 1994, p.340

57) 「論語」憲學篇, ‘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

으로써 겪을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의 괴리감을 노래한 것이다. 노계는 양반으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살았다. 다만 바뀐 것은 전란으로 인해 바뀐 그를 둘러싼 외적 환경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현실은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없는 양반으로서의 의식만 남아 있는 노계의 현실적 좌절감과 자기 위안이 「누항사」의 내용이다. 결국 노계는 현실 공간에서 어떤 것도 풀지 못한 갈등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

2. 「船上嘆」에 나타난 國難과 위기극복

「船上嘆」은 「太平詞」와 더불어 조선 전쟁가사의 본보기라 할 수 있는 작품이다. 『노계집』에서 살펴볼 수 있는 「船上嘆」의 창작동기는 다음과 같다.

“때에 나라가 아직 남쪽 변방이 근심스러우므로 공을 統舟師로 뽑아 부산을 방어토록하기 위해 부임케 했다. 공이 배에 임하여 이 곡을 지었다.”⁵⁸⁾

위의 기록은 「船上嘆」이 노계의 나이 45세였던 乙巳年(1605년, 선조 38년) 통주사로 임명되어 가며 지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7년 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후 7년이나 지난 정도였으나 이 작품에는 아직도 여전한 일본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포함해 조선에서의 전란은 1598년 노량해전, 1599년 명군이 철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다가 정식으로 종전이 된 것은 1609년이 되어서이다.

박인로는 32세(1592)되던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 別侍衛에 있다가 영천의 의병장 鄭世雅의 수하로 참여한다. 1599년 39살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고 守門將, 宣傳官 등 몇 개의 관직을 잠깐 지낸 뒤 조라포 만호에 이르게 된다. 노계는 조라포 만호로서 전략요충지 방어를 책임지게 되는데 이 시기는 전후의

58)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歌, 船上嘆(역락, 1999), 160쪽.
時國家尙憂南陲 選公統舟師 赴防釜山 公臨船作此曲

피폐함과 국가 체제의 재정비로 관리의 녹봉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다. 그만큼 군사의 조련과 배치, 둔전의 개간 등 조라포 만호라는 직함이 수행해야 했던 정상적 업무 수행도 어려움을 컸을 것임을 쉽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 조라포 만호의 직을 수행하던 중 三南御史로 내려온 崔暉으로부터 군기 수리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하게 된다.⁵⁹⁾

앞에서 언급한 여러 어려움은 노계가 관직에 있을 시에도 드러날만한 재산을 모으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이는 이후 「陋巷詞」 같은 작품에서도 드러나는 경제적 곤란에 이르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선조대의 조선은 문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다. 선조대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외침이 없었던 평화기였던 시기라 특별히 武에 힘쓰지 않았으며, 성리학적 연구의 절정기였기 때문에 武보다 文을崇尚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고 난 이후에도 武보다 文을 숭상하는 시대적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런 현실에 대한 武官으로서의 한탄이 「船上嘆」에는 녹아 있다.

여기에는 노계의 武官으로서의 한계 인식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임금에 대한 충성과 우국지성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임금을 至近에서 모시지 못하는 한탄은 그런 노계의 의식의 연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계가 가진 文에 대한 욕구는 당연한 흐름이었을 것이며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당대 유학자들의 풍류를 통해 武人에서 文人으로서의 변화는 그런 한계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계 자신의 욕구의 발현이다. 당대 유학자들의 從遊를 통한 성리학의 수양은 文人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武人으로서의 한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당대 성리학의 거물들을 풍유하는 과정은 노계가 가졌던 심리적 벽을 넘어서는 과정이었으며 학문적으로 몇 단계 성숙하는 과정이었다.

게다가 영남 지역에 기거하던 향반들, 즉 재지사족들의 일반적 분위기는 벼슬

59) 최현재, 「朴仁老 詩歌의 現實的 基盤과 文學的 指向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18

이덕형은 1611년 벼슬에서 물러나며 1613년에 죽는다. 박인로가 조라포 만호에서 물러난 1612년이 공교롭게도 이덕형이 벼슬에서 물러난 다음 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박인로가 물러나게 된 데에는 이덕형의 몰락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보다는 성리학적 수양을 더욱 높은 가치로 평가하였다. 물론 벼슬길로의 진출이 쉽지도 않았다. 이런 영남 지역 향반들의 분위기도 노계의 도학 수양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늘고 病든 몸을 舟師로 보니실시
乙巳三夏에 鎭東營 느러오니
關防重地에 病이 깃다 안자실라
一長劍 비기츠고 兵船에 구테 올라
勵氣曠目호야 對馬島을 구어보니
브람 조친 黃雲은 遠近에 사혀 잇고
아득흔 滄波는 긴 하늘과 혼빗칠쇠

노계는 이 작품에서 자신을 ‘늘고 病든 몸’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과장하지 않는 조선 사대부 특유의 謙讓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 어려운 처지에 맡게 된 직함이었음을 드러낸다. ‘關防重地에 病이 깃다 안자실라’는 화자가 군인으로서의 충실한 자세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준다. ‘一長劍 비기츠고 兵船에 구테 올라’에서는 武官으로서의 자신의 직위를 드러낸다.

船上에 徘徊호며 古今을 思憶호고
어리미친 懷抱에 軒轅氏를 애드노라
大洋이 茫茫호야 天地에 둘러시니
진실로 비 아니면 風波萬里 밧기
어니 四夷 엿볼넉고
무슴 일 호려 호야
비 못기를 비릇호고

萬世千秋에 ㄱ업손 큰 弊 되야,
普天之下에 萬民怨 길우는다

이 부분은 현재의 어지러운 국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외침에 대한 원인을 ‘비’가 있었기 때문으로 인식한다. 이는 다분히 작가적 상상력이다. 뒷 단락에 이어 중국의 현원씨가 만약 배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즈버 씨드라니 秦始皇의 타시로다
비 비록 잇다흐나 倭를 아니 삼기던들
日本 對馬島로 뵈 비 절로 나올넌가
뉘 말을 미더 듯고 童男童女를 그디도록 드러다가
海中 모든 섬에 難當賊을 기쳐두고
痛憤흔 羞辱이 華夏에 다 밋나다
長生不死藥을 얼미나 어더너여
萬里長城 높히 사고 몇 萬年을 사도편고
늑디로 죽어가니 有益흔 줄 모르로다
어즈버 싱각흐니 徐市等이 已甚흐다
人臣이 되야셔 亡命도 흐는것가
神仙을 못 보거든 수이나 도라오면
舟師 이 시림은 견혀 업게 삼길렀다

이 부분에서는 秦始皇을 언급한다. 秦始皇이 徐市에게 지시하여 많은 童男童女와 함께 동해의 三神山으로 不老草를 찾으라 보냈지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한다. 화자는 이 무리들이 일본에 정착하여 倭의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후손인 왜가 우리를 침범했기 때문에 이는 모두 진시황의 탓이라는 것이다. 이도

앞에서도 언급한대로 작가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두어라 既往不咎라 일너 무엇 흐로소니
속절업손 是非를 후리쳐 더더두자
潛思覺寤 하니 내 뜻도 固執고야
黃帝作舟車는 윈 줄도 모르로다
張翰江東에 秋風을 만나신들
扁舟곳 아니 타면 天淸海闊하다
어니 興이 절로 나며
三公도 아니 밧골 第一江山에
浮萍갸흔 漁父生涯을 一葉舟 아니면
어디 부쳐 든힐논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왜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을 軒轅氏와 秦始皇을 탓하는 것이 지나친 생각이라며 배가 있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풍류적 삶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볼 것은 이 시기가 화자 스스로 말하고 있는대로 ‘벗람 조친 黃雲은 遠近에 사혀 잇’는 시기라는 것이다. 여기서 黃雲은 단순히 누런 구름이 아니라 당시의 戰運을 비유한 것으로 화자는 이 시기를 아직 전쟁의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으며 아직도 왜적으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화자의 위치는 倭라는 적을 상대하고 있는 最前線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풍류적 삶에 대한 希求는 실제로 화자가 추구했던 하나의 이상적 삶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당시 사대부들의 의식적, 관습적 표현이었을 것이다. 노계역시도 사대부의 범주에 들어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배가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을 어부들의 생산활동에 두지 않고 풍류에 두

었다는 점은 사대부로서의 의식의 반영이다.

이 시기 노계의 정치적 상황을 본다면 지방에서 말직에 해당하는 직함에 몸담고 있으면서 유교적 이상의 추구를 꿈꾸던 때이다. 이때 자신의 직함을 통주사라고 노계는 밝히고 있으나 통주사라는 직함은 찾아볼 수 없다. 통주사는 명확한 관직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주관적 명칭일 가능성이 많다. 풍류를 언급하는 부분은 사대부로서의 관습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다. 여러 면에서 이 시기 노계의 풍류는 실제 그의 지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사대부들의 관습적 표현을 빌어 스스로도 사대부라는 계급 의식을 놓지 않으려는 노계 자신의 의식적 노력이 언어적 표현으로 나온 것일 것이다.

일언 닐 보건던 비삼긴 制度야

至妙흔 덧 흐다마는 엇디흔 우리 물은

늑는 듯흔 板屋船을 晝夜의 빗기 타고

臨風咏月호디 興이 전혀 업는게오

昔日舟中에는 杯盤이 狼籍터니

今日舟中에는 大劍長鎗뿐이로다

흔가지 비언마는 가진 비 다라니

其間憂樂이 서로 갖지 못흐도다

이 부분에서는 화자가 다시금 현재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 과거의 배가 술잔과 쟁반이 있는 풍류적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대검과 장창이 있는 전운이 감도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같은 작품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단순히 문학적 수사라기보다는 화자 혹은 작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재 자신의 위치와 현실에 대한 인식, 자신의 계급적 자의식,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이는 화자의 갈등의식의

표현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時時로 멀이 드리 北辰을 바라보며
傷時老淚를 天一方의 디이느다
吾東方 文物이 漢唐宋에 디라마는
國運이 不幸하야 海醜兇謀애
萬古羞을 안고 이서 百分애 혼가지도
못 시서 버려거든
이 몸이 無狀흔들 臣子 | 되야 이서다가
窮達이 길이 달라 몬 피옵고 늘거신들
憂國丹心이야 어니 刻애 이즐넉고

이 부분은 화자의 의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몸이 無狀흔들 臣子 | 되야 이서다가/窮達이 길이 달라 몬 피옵고 늘거신들’이라는 표현은 화자가 관등이 높지 않은 무관이어서 임금을 至近에서 피하지 못한다라는 신분적 한계의식을 드러낸 말이다. 신분적 한계로 인한 갈등의식은 궁궐과 안빈낙도 사이에서의 갈등만큼이나 노계의 삶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이었다. 「소유정가」에 유사한 표현이 등장한다.

窮達이 길히 달라 못 피옵고 물러셔도
犬馬微盛은 갈소록 새롭느다
平生애 품은 뜻을 비노이다 하느넉끼

<소유정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연히 義兵에 참여했을 때나 무과에 급제할 때만 해도

노계의 꿈은 입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리 등용의 부패가 극에 달해 있던 당시에 노계의 정치적 야망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파 분쟁의 혼란스러움의 시기에 높은 관직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가문의 배경이 든든해야 한다. 즉 개인의 窮達은 가문의 窮達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⁶⁰⁾ 가문의 뒷받침이 없었던 노계는 부당하게 파직을 당하고 ‘窮達의 길’이 다름을 깨달으며 낙향하게 된다. 즉 이 부분은 정치적 현실에서 갈등, 즉 신분적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인생의 좌표를 설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화자는 ‘憂國丹心’을 언급하며 나라에 대한 걱정을 보여준다. ‘憂國丹心’은 신분적 한계로 인한 불만족 이외에 화자가 진심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주제의식이다. 불안한 시대에 대한 탄식과 전선에 임한 武官으로서의 자신의 직분에 대한 다짐을 보여준 나라를 걱정하는 단 하나의 마음의 표현이다. 이는 당시 글을 배웠다는 사람으로서, 유학자로서의 사회적 소명의식이기도 했다.

慷慨계운 壯氣는 老當益壯하다마는
 痘고마는 이 몸이 病中에 드러시니
 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恨건마는
 그러나 死諸葛도 生仲達을 멀리 좃고
 발 업슨 孫臏도 龐涓을 잡아거든
 恨물며 이 몸은 手足이 7자 잇고
 命脈이 이어시니 鼠竊狗偷을
 저그나 저홀소나
 飛船에 달려드리 先鋒을 거치면
 九十月 霜風에 落葉가치 헤치리라
 七縱七禽을 우린들 못홀것가

60) 조응환, 「<누항사>의 교육적 의미와 지도의 실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48

이 부분에서는 죽은 제갈공명이 사마중달을 쫓아버린 삼국지의 일화와 손빈이 다른 나라 장수가 되어 자신을 배신한 방언을 잡혀 죽게 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왜구를 막아내겠다는 다짐을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憂國丹心’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雪憤伸冤’은 화자가 이전의 전쟁을 얼마나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며 화자가 가진 적개심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이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종료된지 7년 후(선조 38년, 1605) 창작된 작품이지만 실제 조선과 왜의 종전 선언은 광해군 1년(1609)에서야 이루어진다. 전쟁 이후 두 나라의 긴장감이 팽배하던 시기였고 왜에 의해 유발된 전쟁에 대해 조선은 막대한 인적,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패배감을 겪게 되었지만 이 작품의 창작시기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혼란과 긴장의 시기였다. 이런 시대상이 작품 내 노계의 정서에는 녹아 있는 것이다.

蠢彼島夷들아, 수이 乞降호야스라
 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티 殲滅하라
 吾王聖德이 欲竝生호시니라
 太平天下에 堯舜君民돼야 이서,
 日月光華는 朝復朝호얏거든
 戰船트던 우리 몸도 魚舟에 唱晚호고,
 秋月春風에 눕히 베고 누어이서,
 聖代 海不揚波를 다시 보려 호노라.

이 부분은 상대인 왜를 ‘蠢彼島夷’ 즉 꾸물거리는 섬나라 오랑캐라고 굴욕적인 명칭으로 지칭하며 항복을 권하는 내용이다.

시대의 평온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전쟁에서의 승패라는 관점에서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했어야 일방적 승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임진왜란은 사실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고 말하기에는 어려

운 전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降者不殺’, ‘殲滅’을 언급하는 것은 무인으로서의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을 수는 있겠으나 이전 임진왜란의 전황을 아는 상황에서는 다소 과도한 의식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무인의 기개,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면에서 어휘와 구절을 보면 노계가 우리의 문물과 왕, 국가의 기상을 찬양하는데서 명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이 보인다.⁶¹⁾ 그러나 「船上嘆」에서는 가사를 서술하는 태도에서 현실 비판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는 「누항사」와 비교하여본다면 다소 소극적 의식이고 표현이다. 이는 우국지성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현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노계의 현실을 고민한다면 갈등의식을 바탕으로 한 소극적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立巖二十九曲」에 나타난 修養樂道

“때에 旅軒 張先生이 本郡 북쪽 立巖에 寓居하였는데 公이 일찍이 從遊하며 旅軒을 대신하여 이 노래를 지었다.”⁶²⁾

이 글은 노계가 「立巖二十九曲」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려주면서 함께 蘆溪가 旅軒을 從遊하였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隔塵嶺 하 놓흐니 紅塵이 머리간다
ㄱ득이 먹은귀 싯슬스록 먹어가니
산박기 是是非非를 듯도보도 못흐로다

61) 이주아, 「노계 박인로의 전쟁가사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01

62) 朴仁老 著, 김문기 譯註, 『國譯 蘆溪集』 卷三, 歌, 船上嘆(역락, 1999), p.186

時旅軒張先生寓居本郡北立巖 公嘗從遊 代旅軒作此歌

<立巖二十九曲 - 隔塵嶺>

위 시조는 노계가 여헌 장현광을 중유하여 立巖으로 찾아가서 학문적 가르침을 청하다 여헌의 「立巖記」에 영향을 받아 짓게 된 「立巖二十九曲」의 일부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계의 입암행은 학문적 수양을 위한 길이었다. 그리고 노계가 학문 수양에 몰입하게 된 것은 사대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유학자로서의 수양의 일환이었다. 노계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유교적 관념으로서의 입신을 완성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극복의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노계가 위의 시에서 ‘紅塵’과 ‘是是非非’를 언급함은 자신에게 입신의 기회를 앗아버린 부정적 세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의 반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世情이 하 殊常호니 나를 본들 반길년가
枉己盾人호야 내 어디 올라가랴
山 도코 물 도흐 곶의 삼긴 대로 늘그리라.

<立巖二十九曲 - 巖答>

이 작품에서는 어두운 시대상을 ‘世情이 하 殊常호니’라고 하며 은연 중에 언급한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을 것이다’라며 자기의 지조와 양심을 굽히면서까지 세속의 榮華에 연연하기 보다 차라리 세속을 멀리하고 욕심 없이 살고자 했던 노계의 안빈낙도 의식의 일면이 엿보인다.⁶³⁾

草屋 두세 間을 巖穴에 부쳐 두고
松竹 두 빗치 病目에 익어시니
이 中에 春去秋來를 아므 쟈 줄 모르로라.

<立巖二十九曲 - 精舍>

63) 金庚良, 「蘆溪詩歌에 나타난 思想研究」, 조선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과, 2000, p.51

두어 칸 초가집을 바위 틈에 짓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보며 시간가는 줄 모르게 지내고 싶다는 바람은 安貧樂道의 생활상 자체이다.

노계의 安貧樂道 의식은 선천적인 것은 아니었다. 처음 무과에 급제하고 출사를 할 때만 해도 安貧을 꿈꾸지는 않았으나 전쟁이 끝나면서 偃武崇文의 조짐이 다시 나타나며 무인으로서 기상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과거까지 당하게 된다. 게다가 자신의 후원자이기도 했던 한음 이덕형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서 노계는 자신의 後半生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는 鄉里에서 궁핍한 삶의 고통을 선비의 자부심으로 이겨내면서 욕심없는 마음으로 안빈을 추구했다.⁶⁴⁾ 이는 이전 「陋巷詞」에서 보였던 고통의 인식과 갈등의 일면으로서의 ‘安貧’과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尋眞洞 느린 물이 巖下에 구비지어
不畲晝夜호야 亭子 압히 드러오니
어즈버 落水伊川을 다시 본 듯호여라

<立巖二十九曲 - 尋眞洞>

노계는 尋眞洞을 흘러내리는 물줄기 소리를 송나라의 대유학자인 程明道와 程伊川 형제가 학문과 인격을 修養하며 살았던 落水伊川의 물줄기 소리로 생각한다. 그 물줄기 소리에서 마치 程頤를 본 듯 했고 조금이라도 程頤의 사상적 체취를 가까이하고자 노계도 聖賢의 道에 따르겠다는 心境을 표현한 것이다.⁶⁵⁾

南魯岑 이 일흠을 뉘라서 지은 게오

64) 金庚良, 「蘆溪詩歌에 나타난 思想研究」, 조선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과, 2000, p.52

65) 金庚良, 「蘆溪詩歌에 나타난 思想研究」, 조선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과, 2000, p.44

夫子 登臨도 이 東山 아니런가

萬古靑山이 只麼히 높하시니 아무던 줄 모르로라

<立巖二十九曲 - 小魯岑>

이 글은 노계가 성리학에 정진하며 공자와 맹자의 도를 온전히 배워 익히고 실천에 옮기고자 마음에 심취했음을 보여주는 글이다. 立巖의 南魯岑에 올라 그곳에서 孔子가 올랐다는 小魯岑⁶⁶⁾를 떠올렸다고 말하며 노계가 공자의 德과 學을 이어 받고자 함을 선언한다.

노계는 旅軒을 따라 立巖에 들어 학문 정진에 힘쓴다. 그것은 노계가 이전에 가졌던 현실적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었으며 사대부 文人으로 다시 거듭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노계는 일관되게 성현의 삶을 언급하며 동일시를 이루고자 한다. 이는 노계가 晩年에 修身과 人倫의 道理를 인식하는 방법이었고 도학 수양에 힘쓰고자 하는 道學者로서의 자세였다.

V. 蘆溪 詩歌의 지도 방안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도방안은 하나의 설정 모형이며, 따라서 단원의 설정도 본 논문의 목적에 맞춰 가상의 단원을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 蘆溪가 작품에서 보인 현실인식의 측면을 경제적 현실과 유교적 이상 사이의 갈등, 국가위난과 신분적 한계 사이의 갈등, 학문 연구와 은거의 지향으로 구분짓고 뇌구조 알아보기, Hot Seating, SCAMPER, 5WHY 기법을 통해 학습자들의 활동으로 접근하게 해보고자 한다. 이런 가상의 설정들은 노계 박인로라는 한 인물이 겪게 되는 갈등의 양상을 확인하고 학습자 간 토의를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66) 「孟子」 盡心篇, 孔子登東山而小魯 登泰山而小天下

I. 계획 단계

1. 단원 및 학습 주제

가. 대단원명: 2. 고전 시가의 현실인식과 사실성

나. 소단원명: (1) 「陋巷詞」의 농촌현실과 사대부 의식

(2) 「船上嘆」의 국난의 극복과 신분적 한계

(3) 「立巖二十九曲」의 수양실천과 현실초탈

다. 학습 목표

-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고전 시가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삶의 자세와 그 속에서의 갈등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2. 대단원 설정 이유

고전 시가는 흔히 조선 개화기 이전의 시가 작품들을 일컫는 명칭이다. 그 중 조선 시대에 불려졌던 다양한 시가는 조선의 실질적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래서 시가의 주제의식도 사대부들에 의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이 단원에서는 조선 시대 여러 시가들에서 어떤 주제의식이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여러 생각들과 관련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시가 작품의 주제의식이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작품에 드러난 우리 선조들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한다.

3. 대단원 구성의 방향

이 단원에서는 고전 시가 작품이 형성하고 있는 주제의식에 대해 이해하고, 작

품을 깊이 있게 수용하며 나아가 비판적 · 창조적으로 생산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고전 시가 문학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고전 시가 문학 작품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4.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수준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31054. 문학의 예술,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	31054-1. 문학의 다양한 주제 의식이 인접 분야의 주제 의식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상	문학의 다양한 주제 의식이 여러 인접 분야의 주제 의식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의 수용, 생산 활동의 본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인문 - 사회 - 예술 - 기타
		중	문학의 다양한 주제 의식이 여러 인접 분야의 주제 의식과 보편성이 지니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하	문학의 다양한 주제 의식이 인접 분야의 주제 의식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의 수용, 생산 활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작가의 창작 활동을 문학의 심미주의적 태도에만 두지 않음을 전제로 학습자에게 다양한 인접 분야와의 관계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문학의 다양한 주제 의식이 여러 인접 분야의 주제 의식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은 문학이 인간의 삶의 다양한 모습과 사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통해 노계가 작품을 통해 자신만이 아닌 당대 시대인의 삶을 담아내고 당시의 아픔을 녹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310511.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310511-1. 작품을 읽고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제의식과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	상	작품을 읽고 구체적 예를 들어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문제의식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중	작품을 읽고 작품의 문제의식과 주제가 나타난 대목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하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제의식과 주제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고전 작품에서 학습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학습자가 작품의 화자나 주인공의 삶을 자신의 삶과 소원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삶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은 작품에 담긴 주제의식과 문제의식이 과거의 것만이 아닌 현재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삶과도 관련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작품을 읽고 작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주제와 문제의식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한다.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성취수준	
310513.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310513-1.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생각을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다.	상	작품을 읽고 구체적 예를 들어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문제의식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중	작품을 읽고 작품의 문제의식과 주제가 나타난 대목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하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문제의식과 주제를 파악하여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310513-2.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상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중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	작품 속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을 보인다.
--	--	--	--------

이 부분은 작품 속에 반영된 화자의 다양한 생각과 내적 갈등의 양상을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도록 설정한 부분이다. 이 장에서 제시하는 육색 사고모 활동을 통해 각각의 생각을 한 인물의 단일한 생각으로 설정하고 내적 갈등을 여러 인물들의 토의 과정으로 치환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자들에게 내적 갈등이 여러 생각의 충돌과정임을 보여준다.

5. 대단원 구성 및 교수 · 학습 계획

구분		교과 내용	교수·학습 지도 방법
대단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전에’를 통해 고전 시가의 주제 의식과 관련된 플래시 영상을 보고, 고전 시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 의식과 관련하여 이전에 학습했던 작품들을 모둠별로 찾아 보도록 한다. · ‘이 단원에서는’을 통해 대단원의 학습 내용과 목표에 대해 알도록 한다. · ‘단원 한눈에’를 통해 소단원 (1)~(3)의 학습 목표와 앞으로 배우게 될 작품에 대해 알게 한다. 	
(1) 「陋巷詞」 의 田園과 농촌현실인 식	소단원 도입	화자의 처지-궁핍함-를 파악할 수 있는 만화 자료 화면 제시	· 고전 시가에 드러난 주제 의식의 다양성을 파악한다.
	활동 1 작품	고전 시가 박인로 ‘陋巷詞’	· 작품을 읽고 화자의 내적 갈등의 양상을 파악한다.
	활동다지기	① 작품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의 양상을 파악한다. ② 화자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파악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의 원인을 추리한다. ③ 화자의 내적 갈등의 양상을 인물의 고정된 생각으로 가정하고 뇌구조 알아보기 활동을 통해 토의를 진행한다.	
(2) 「船上嘆」 의 國家危難과 사대부의 사명의식	활동 1 작품	고전 시가 박인로 ‘船上嘆’	· 전쟁 가사의 특징을 파악하며 우국지정의 주제 의식을 파악한다.
	활동다지기	① 작품에 담겨 있는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② 의미 단락 별로 달라지는 상황 인식과 표현을 확인하여 우국지정의 주제 의식을 파악한다. ③ 화자의 우국지정을 알 수 있는 문구와 신분적 한계를 토로한 문구를 파악한다.	

(3) 「立巖二十九曲」의 학문연구와 사대부의 은거	정리와 자기 점검		· 단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고 학습한 내용을 떠올려 본다. ·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 은 보충한다.
	마 무 리 활 동	작품	고전 시가 박인로 ‘立巖二十九曲’ · 산수 가사의 특징을 파악 하며 사대부의 수양과 현실 초탈 의식을 파악한다.
		활동 문제	① 작품에 담겨 있는 사대부의 유교적 수양의 양상을 파 악한다. ② 사대부의 삶에서 은일과 현실초탈의 양상을 파악하여 그런 삶을 알 수 있는 어휘를 파악한다.

6. 대단원 학습 목표

가. 고전 시가 작품의 다양한 주제의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나. 작품을 깊이 있게 수용하며, 작품 속 내용들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II. 진단 단계

1. 학습자 구성

가. 조사 대상: 2학년 9반 41명(여학생)

나. 조사 방법: 자체 제작 설문지

2. 학습자 설문 조사 결과 및 분석

1. 평소 문학에 흥미가 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3	8	15	12	3
문학에 대한 흥미도는 ‘보통이다’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학생이 대				

부분으로, 이는 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원인은 평소 문학 작품을 즐기고 감상할 것이 아닌 공부를 위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도가 떨어졌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양하고 흥미있는 학습모형의 개발로 학습자의 흥미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 문학 영역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고전 시가	고전 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수필	극
2	2	19	7	5	6

좋아하는 문학 영역으로 ‘현대시’영역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 ‘고전 시가’, ‘고전 소설’에 관해 흥미를 보이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고전’ 작품의 생소한 표현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생각과 고전의 내용들이 현대적 삶과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고전이 현대인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언급하는 여러 주제의식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가난, 좌절	남녀 간의 사랑	안빈낙도	자연친화	충효예
2	5	11	19	4

고전 시가를 접함에 있어 학생들이 작품을 어떻게 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우선은 자연과 가까이 살고 있지 않은 학생들의 현재의 삶과는 동떨어진 주제의식이라 할 수 있는 자연친화를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일정한 주제의식으로 편향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물론 고전 시가 작품들을 의도적으로 주제의식을 그렇게 나열했다기보다는 우리 선조들의 작품들 중 자연과의 관련을 언급한 주제의식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고전 시가 작품도 당시 선조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었고 따라서 그 속의 주제의식이 그 당시 선조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현대에도 유효한 것이었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陋巷詞」를 통한 田園과 농촌현실인식

- 갈등과 현실대응의 자세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 「陋巷詞」 내에서의 노계의 현실인식을 내면 갈등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계가 가졌던 사대부로서의 신분 의식과 전란 이후 자신 앞에 놓인 경제적 몰락과 궁핍의 상황 사이에서 인물의 가졌을 혼란을 내적갈등의 양상으로 파악한다. 학습자는 본인이 생각나는대로 한 인물의 뇌구조를 그려가며 한 인물의 머릿속에도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생각들 사이에서의 충돌이 바로 내적갈등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한다. 또



<그림 6> 뇌구조 그리기

그렇게 얻어진 개인의 결과물을 Hot Seating 기법으로 한 인물에 대한 인터뷰의 형식으로 내용을 학습자 간에 공유하도록 한다. 이는 일종의 Jigsaw 모형의 변형 적용으로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뇌구조 그리기와 Hot seating 기법을 통한 인터뷰를 학습에 이용해본다.

1) 뇌구조 그리기

이 방법은 학습자들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한 인물이 가진 다양한 생각이 내적갈등의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방법이다.

본 학습에서는 노계 박인로가 가진 생각을 심층 분석하여 핵심 키워드 또는 간단하게 요약된 내용으로 표현한다.

- 인물이 겪는 심리적 갈등 상황을 찾아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 인물의 뇌 구조를 한 장에 모두 표현하도록 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색연필로 구분할 수 있다.
- 선정한 핵심 키워드가 왜 서로 다른지, 모둠별로 이야기해본다.
- 학생들이 이미지 표현에만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화자의 심리적 갈등 상황을 표현한 핵심 키워드가 왜 서로 다른지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의 예) 가난, 노비 어디갔어?, 나 그래도 사대부인데, 난 누구 여긴 어디?, 글공부하고 싶다, 오늘 뭐먹지?, 소 주인 나쁜놈 등

이렇게 찾아지는 각 키워드는 앞의 뇌구조에 써지게 되고 각자의 감상에 따라 키워드의 크기나 색깔은 달라지게 된다. 이 내용은 이어지는 ‘핫시팅(Hot seating)’ 기법으로 이어 각자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2) ‘핫시팅(Hot seating)’ 기법

‘핫시팅(Hot seating)’ 기법은 각자의 활동 내용을 다른 학습자들이 공유하게 하는 활동인 동시에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의 과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활동이다.

핫시팅(Hot seating) 기법 : 한 사람이 작품 속 인물이 되었다는 가정 하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인물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묻고, 의자에 앉은 학생은 그 인물의 입장에서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 형식의 기법이다.

질문 내용은 겹치거나 단조롭게 진행되지 않도록 모듈활동을 통해 질문을 공동으로 제작하도록 한다. 질문의 형태를 부정적 질문, 긍정적 질문, 감정적 질문, 이성적 질문 등의 형태로 나누어 유형별로 골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듈별로 돌아가면서 한 명이 대표 인물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른 모듈에서 그 시대의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은 성의있게 답변한다.

-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이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이 속한 모듈에서 다른 학생으로 교체할 수 있다.
- 돌아가면서 다양한 인물들의 상황을 접해 본 후 그 느낌을 각자 기록을 해본다.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1>

단원	<p style="text-align: center;">Ⅲ. 문학 활동의 실제 2. 고전 시가의 현실인식과 사실성 (1) 「누항사」의 전원과 농촌현실인식</p>				
학습 목표	<p>1.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해 말할 수 있다. 2. 작품에 드러난 화자의 삶의 자세와 그 속에서의 내적 갈등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p>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활동		수업 매체	수업 형태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8)	인사 및 출석확인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인사한다.	출석부	모든 활동을 위한 자리 배치 확인 학습지 배부 상태 확인
	동기 유발	학습 분위기 조성	기분을 전환하고 주의 집중한다.	그림 및 만화	
		수업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한다. - 임진왜란 이후 피폐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 자료와 노계의 경제적 곤란을 특징있게 보여주는 만화 장면을 제시한다.	주의 집중하여 화면을 본다. - 주어진 자료를 통해 사회적 상황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다.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칠판에 적고 큰 소리로 읽게 한다.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판서	
	전시 학습 확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다. - 『상춘곡』의 주제의식 -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자연친화, 안빈낙도의 삶	교과서와 PPT화면을 보며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교과서 PPT	
	학습 흐름 안내	학습지의 문제와 PPT 상의 질문을 학생들에 보여 주어 본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보게 한다.	학습지와 PPT를 보고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하는지 인식한다.	PPT 학습지	
- 뇌구조 그리기 활동을 활용하여 ‘누항사’에 나온 화자의 삶에 대해 키워드를 통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 중립적 관찰, 긍정적 입장, 부정적 입장, 종합적					

		해석			
전개 (34)	목표활동 1에 대한 교사 설명	교과서에 나온 지문이나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읽는다.	지문이나 작품을 읽는다.	교과서 학습지	전체 학습 이론 학습 개별 학습
		질문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의 대답을 유도하고,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 임진왜란 이후 화자가 어떻게 살았을지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사전에 교사가 제시한 질문을 상기하고 그에 중점을 두어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학습지의 빈칸을 스스로 채워 본다.		
	목표활동 1에 대한 학생 활동	2~3분 정도 시간을 주어 학생들이 뇌구조 그리기를 학습자가 파악한 핵심 키워드를 채워 넣게 한다.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은 학습자끼리 함께 의논하여 해결하거나 교사에게 질문하도록 한다.	뇌구조 그리기 학습지 빈칸을 채워 놓고,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은 짝과 의논하여 해결하거나 교사에게 질문한다.		개별 학습 짝 학습 교실 순회지도
	목표활동 1에 대한 교사 피드백	학생들이 작성한 학습지를 모둠 내에서 공유하도록 하고 모둠 내에서 답변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질문은 유형별 내용으로 겹치지 않고 다양한 질문이 나오도록 한다.	학생들이 작성한 학습지를 모둠 내에서 공유한다. 답변자를 지정하고 답변자는 노계의 입장에서 답변을 준비한다.	학 습 지 의 자	전체 학습 개별학습
목표활동 2에 대한 학생 활동	Hot Seating 활동에 대한 예시 영상을 보여준다. Hot Seating 활동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된 질문내용을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하도록 한다.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답변에 곤란을 겪을 시 도움을 준다.	주의 깊게 듣는다. Hot Seating 활동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된 질문내용을 지정된 답변자에게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질문한다. 곤란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의 조언을 얻는다.	교 과 서 학 습 지	전체 학습 모둠 학습 교실 순회지도	

		모둠활동의 전체적인 진행을 맡는다.			
		모둠별/학생별 활동을 평가한다.			
	목표활동 2에 대한 교사 피드백	활동을 통해 이어진 질문과 발표 내용을 정리해 준다. 학습자들이 놓칠 수 있는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는 교사의 설명으로 보강한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학습지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	PP T	전체 학습
	질의응답	수업 내용 전반에 대한 질문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답한다.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		전체 학습
정리 (8)	수업 내용 정리	관서를 통해 수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교사의 관서를 교과서나 학습지에 메모한다.	관서 교과서 학습지	전체 학습 개별 학습
	형성 평가	형성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한다.	화면을 보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한다.	PP T	
	과제 제시	과제 내용을 제시한다.	과제의 내용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한다.		
	차시 학습 예고	다음 시간 학습할 내용을 예고한다.	주의 깊게 듣고 교과서를 훑어 본다.	교과서	
	인사 및 종료	인사하고 마무리 한다.	인사한다.		

2. 「船上嘆」을 통한 國家危難과 사대부의 使命意識

- 國家危難과 신분적 한계 사이의 문제를 중심으로

「船上嘆」의 지도는 국가위난의 상황에서 노계가 가졌던 우국충정의 마음과 그것을 실현하기에 한계로 작용했을 신분적 한계에 초점을 맞춰 지도한다. 신분적 한계의 원인을 사회적 배경에서 찾도록 하고 시대적, 사회적 배경의 문제점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데에 학습의 목표를 둔다.

「선상탄」이 쓰여지던 당시의 조선은 문을 숭상하고 무를 낮게 보았던 시각이 있었다. 그 속에서 노계가 가진 미관 말직 무관으로서 신분적 한계 의식과 나라를 걱정하는 憂國之性 사이에서의 갈등 양상을 확인하게 해준다.

이 단원에서는 스캠퍼(SCAMPER) 기법으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달라지는 인물의 상황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각자 모듈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그 내용에 따른 인물의 입장을 SNS 가상 댓글 달기 활동으로 확장시킨다.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함께 달라지는 인물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학습자가 알게 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이다.

1) 스캠퍼(SCAMPER) 기법으로 작품 새롭게 보기

고전시가 작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 작품 속 시대와 인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학 작품의 내용을 새로운 상황으로 가정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인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활동이다.

‘스캠퍼(SCAMPER)’ 기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작품 속 상황을 새로운 상황으로 가정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스캠퍼(SCAMPER) 기법 : 사고의 영역을 몇 가지로 제안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도출해 내는 아이디어 산출 방법이다. ‘스캠퍼(SCAMPER)’는 Substitute(대체하기), Combine(결합하기), Adapt(응용하기), Modify, Magnify,

Minify(변형, 확대, 축소하기), Put to other uses(다르게 활용하기), Eliminate(제거하기), Reverse, Rearrange(뒤집기, 재배열하기)의 앞 글자를 딴 명칭이다.

예) Substitute(대체하기) : 만약 노계가 미관말직의 무관이 아니라 큰 군대를 이끄는 장수였다면 「船上嘆」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Magnify, Minify(변형, 확대, 축소하기) : 만약 노계의 작품 창작 시기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의 평화기였다면 노계는 어떤 글을 쓰게 되었을까?

학습자 활동을 통해 새로 만든 이야기를 모둠별로 공유한다.

그 활동을 통해 이 시대에, 이 인물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지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작품 창작의 당위성을 학습자 간에 공유하도록 한다.

2) 가상 SNS 댓글 달기

작품 속 인물의 입장이 되어 가상 SNS 댓글 달기를 통해 공감 대화를 할 수 있다.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인물의 심리 상태 및 갈등 상황을 바탕으로 가상의 SNS 대화를 해보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갈등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 모둠원 중 한 명이 각각 작품 속 화자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 나머지 인원은 작품 밖 관찰자가 되거나 혹은 작품 속 화자를 아는 지인이 되어 가상의 SNS 대화창에서 대화를 주고 받는다.
- 인물의 심리와 인물이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을 충분히 공감했을 때 심층적 대화가 가능함을 안내한다.
- 공감 대화 방법을 소개한다.(경청하며 공감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 / 비난하지 않고 상대의 부정적 감정도 인정하기 / ‘나’를 주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2>

단원	<p style="text-align: center;">Ⅲ. 문학 활동의 실제 2. 고전 시가의 현실인식과 사실성 (2) 「船上嘆」의 國家危難과 사대부의 사명의식</p>				
학습 목표	<p>1.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국난의 상황에서 느끼는 우국충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작품에 드러난 신분적 한계에 따른 인물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3. 달라지는 인물의 상황에 따른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정리할 수 있다.</p>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활동		수업 매체	수업 형태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8)	인사 및 출석확인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인사한다.	출석부	모듬 활동을 위한 자리 배치 확인 학습지 배부 상태 확인
	동기 유발	학습 분위기 조성	기분을 전환하고 주의 집중한다.	PPT	
		수업 내용과 관련된 조선 왕조실록 자료를 제시한다. - 임진왜란 종전 선언 전까지의 긴장 상황을 자료로 파악하도록 한다.	주의 집중하여 화면을 본다. - 주어진 자료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확인한다.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칠판에 적고 큰 소리로 읽게 한다.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판서	
	전시 학습 확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다. - ‘누항사’에서의 노계의 사대부 의식과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 확인	교과서와 PPT화면을 보며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교과서 PPT	
학습 흐름 안내	학습지의 문체와 PPT 상의 질문을 학생들에 보여 주어 본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보게 한다.	학습지와 PPT를 보고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하는지 인식한다.	PPT 학습지		
	스캠퍼(SCAMPER) 활동의 개요와 예에 대해 소개				

		한다. 가상 SNS 댓글달기를 안내한다.			
전개 (34)	목표활동 1에 대한 교사 설명	교과서에 나온 지문이나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읽 는다.	지문이나 작품을 읽는다.	교 과 서 학 습 지	전체 학습 이론 학습 개별 학습
		질문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의 대답을 유도하고,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사전에 교사가 제시한 질 문을 상기하고 그에 중점 을 두어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학 습지의 빈칸을 스스로 채 워 본다.		
	목표활동 1에 대한 학생 활동	10분 정도 시간을 주어 학생들이 모둠별 토의활 동을 하게 한다. SCAMPER 중 어떤 활동 을 할것인지는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	모둠별 토의시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전체 토의를 진행한다.		모둠별 학습 교실 순회지도
	목표활동 1에 대한 교사 피드백	각 모둠별 어떤 선택을 했는지와 학생들이 활동 을 발문과 학생 답변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교사의 피드백을 보며 자 신의 학습지를 수정, 보 완한다.	PP T	전체 학습 개별학습
	목표활동 2에 대한 학생 활동	가상 SNS 댓글달기에 대 해 대해 설명한다. 모둠원들과 함께 댓글달기 활동을 한다. 이때 댓글은 다른 모둠의 활동지에 하여 다른 모둠들간의 상호소통 이 되도록 한다. 교실을 순회하며 문제 해 결에 곤란을 겪는 모둠에 조언을 한다.	주의 깊게 듣는다. 모둠원들과 함께 댓글을 단다. 곤란하거나 어려운 부분 에 대해서는 교사의 조언 을 얻는다.	교 과 서 학 습 지	전체 학습 모둠 학습 교실 순회지도

		모둠활동의 전체적인 진행을 말한다.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모둠 활동의 결과를 발표한다.		
	목표활동 2에 대한 교사 피드백	각 모둠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PPT를 통해 교사가 의도했던 모둠 활동의 정답을 제시해 준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학습지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다.	PPT	전체 학습
	질의응답	수업 내용 전반에 대한 질문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답한다.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		전체 학습
정리 (8)	수업 내용 정리	관서를 통해 수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교사의 관서를 교과서나 학습지에 메모한다.	관서 교과서 학습지	전체 학습 개별 학습
	형성 평가	형성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한다.	화면을 보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한다.	PPT	
	과제 제시	과제 내용을 제시한다.	과제의 내용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한다.		
	차시 학습 예고	다음 시간 학습할 내용을 예고한다.	주의 깊게 듣고 교과서를 훑어 본다.	교과서	
	인사 및 종료	인사하고 마무리 한다.	인사한다.		

3. 「立巖二十九曲」을 통한 학문연구와 사대부의 隱居

- 수양실천과 현실초탈의 지향을 중심으로

「立巖二十九曲」은 노계가 관직에서 은퇴한 후 학문적 수양의 과정에서 자신의 학문적 스승인 旅軒을 따라 立巖에 기거하면서 쓰게 된 작품이다. 여헌의 「立巖記」에 영향을 받아 쓴 작품으로 이 작품은 노계의 학문적 수양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노계의 학문 수양 이전의 작품과는 달리 수양실천과 현실초탈의 지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다.

이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5WHY 기법을 통해 화자의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에 학습자가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목표이다.

1) 5WHY 기법

5WHY 기법을 통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5WHY란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이다.

- 어떤 일이든 5번은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로 현재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변만 한다.
- ‘왜’라고 질문할 수 없을 때까지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게 된다.
- 다양한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사고의 매커니즘을 경험할 수 있다.
- 5WHY는 계속 반복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 5WHY 기법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수 있다. 이때 5WHY 기법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무한궤도처럼 반복되는 문제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인지시킨다. 그 고리를 차단하면 근본 해결

방안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단계별로 WHY라는 질문을 이어 나갈 때는 반드시 전 단계의 답변에서 이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5WHY 학습지>

5WHY 기법을 통해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상황		
1WHY	질문	
	답변	
2WHY	질문	
	답변	
3WHY	질문	
	답변	
4WHY	질문	
	답변	
5WHY	질문	
	답변	

5WHY 질문의 예) 왜 노계는 입암으로 가게 되었지? / 왜 노계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학문적 從遊의 길을 떠나는가? / 왜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武官을 우대하지 않았을까? 등

2) 입국 심사 활동

입국 심사 절차를 본뜬 모형으로, 입국 심사관을 자원한 학생들이 각 단계별로 입국 심사를 받는 학생들에게 미션을 지시하고 학습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도장

을 찍어 주어 성취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학생들 상호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통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앞에서 5WHY 기법을 통해 정리된 질문 내용들을 활용하여 입국 심사관은 질문을 하고 답변자도 부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활동 자체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작품의 표현법에 대한 안내영상을 시청한 후, 표현법에 대한 개념과 예를 직접 기록하는 마인드 맵 활동을 마치고 ‘입국 심사 활동’을 하면 효과적이다.

입국 심사관의 수는 학습하고자 하는 표현법과 어휘의 개수를 고려하여 뽑는다.

- 학습할 표현법이 12개라면 4명을 뽑고 1인당 3개의 표현법을 맡게 할 수 있다.
- 학습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선정되어도 좋다. 입국 심사관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학습해야 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 입국 심사관도 다른 입국 심사관에게 입국 심사를 받도록 한다.

입국 심사관은 자신에게 입국 심사를 받으러 오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한다.

- 질문 1 : 이 시 구절에 사용된 표현법은 무엇인가요?
- 질문 2 : 이 표현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비유, 강조, 변화 중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질문 3 : 화자의 상황을 미루어볼 때 이 어휘의 의미는 뭔가요?

입국 심사를 통과한 학생에게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표현법을 다시 학습해 오도록 요청한다.

먼저 통과한 학생들은 입국 심사 도우미가 되어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친다.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3>

단원	Ⅲ. 문학 활동의 실제 2. 고전 시가의 현실인식과 사실성 (3) 「立巖二十九曲」의 학문연구와 사대부의 隱居				
학습 목표	1. 고전 시가에서 화자가 수양실천의 자세를 드러내는 어휘를 파악할 수 있다. 2. 고전 시가 속 어휘를 통해 화자의 삶의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활동		수업 매체	수업 형태 및 지도상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8)	인사 및 출석확인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	인사한다.	출석부	모둠 활동을 위한 자리 배치 확인 학습지 배부 상태 확인
	동기 유발	학습 분위기 조성	기분을 전환하고 주의 집중한다.	영상자료	
		수업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한다. - 立巖의 風光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자료를 제시한다.	주의 집중하여 화면을 본다. - 주어진 자료를 통해 立巖이라는 산수 환경이 한 개인의 삶에 미칠 영향을 파악한다.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칠판에 적고 큰 소리로 읽게 한다.	학습 목표를 큰 소리로 읽는다.	판서	
	전시 학습 확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히 확인한다. - 국난극복을 위해 애쓰는 화자의 자세와 신분적 한계가 보이는 부분을 확인	교과서와 PPT화면을 보며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확인한다.	교과서 PPT	
학습 흐름 안내	학습지의 문제와 PPT 상의 질문을 학생들에 보여 주어 본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보게 한다.	학습지와 PPT를 보고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하는지 인식한다.	PPT 학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WHY 기법의 안내 - 입국 심사 활동을 안내하면서 학습자 역할에 대해 지정한다. 			
전개 (34)	목표활동 1에 대한 교사 설명	교과서에 나온 지문이나 작품을 학생들과 함께 읽는다.	지문이나 작품을 읽는다.	교과서 학습지	전체 학습 이론 학습 개별 학습
		질문을 적절히 활용하여 학생들의 대답을 유도하고, 수업 내용을 설명한다.	사전에 교사가 제시한 질문을 상기하고 그에 중점을 두어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학습지의 빈칸을 스스로 채워 본다.		
	목표활동 1에 대한 학생 활동	7~8분 정도 시간을 주어 학생들이 5WHY 학습지를 채워 넣게 한다. 어렵거나 모르는 부분은 짝과 함께 의논하여 해결하거나 교사에게 질문하도록 한다.	학습지 빈칸을 채워 놓고, 모르는 부분은 짝과 의논하여 해결하거나 교사에게 질문한다.		개별 학습 짝 학습 교실 순회지도
	목표활동 1에 대한 교사 피드백	모둠활동을 통해 낮은 수준의 질문은 걸러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동 활동으로 작성한다.	학습자 간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학습지를 수정, 보완한다.	PP T 학 습 지	전체 학습 개별 학습
	목표활동 2에 대한 학생 활동	입국 심사 활동의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모둠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교실을 순회하며 입국 심사 활동의 전반을 조정하고 곤란을 겪는 학습자에게 조언을 한다.	주의 깊게 듣는다. 모둠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곤란한 질문이나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의 조언을 얻는다.	교과서 학습지	전체 학습 모둠 학습 교실 순회지도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한다.	모둠 활동의 결과를 발표한다.		
	목표활동 2에 대한 교사 피드백	입국 심사관을 담당했던 학생들이 몇 가지 질문을 예로 들어 장단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교사가 의도했던 모둠 활동의 목표에 근접한 질문과 답변을 학습자에게 제시해 준다.	입국 심사관을 담당했던 학생들이 몇 가지 질문을 예로 들어 장단점에 대해 평가한다.	PP T	전체 학습
	질의응답	수업 내용 전반에 대한 질문의 유무를 확인한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답한다.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		전체 학습
정리 (8)	수업 내용 정리	판서를 통해 수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다.	교사의 판서를 교과서나 학습지에 메모한다.	판서 교과서 학습지	전체 학습 개별 학습
	형성 평가	형성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도록 한다. - OX퀴즈, 객관식, 단답형 문항	화면을 보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큰 소리로 말한다.	PP T	
	과제 제시	과제 내용을 제시한다.	과제의 내용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메모한다.		
	차시 학습 예고	다음 시간 학습할 내용을 예고한다.	주의 깊게 듣고 교과서를 훑어 본다.	교 과 서	
	인사 및 종료	인사하고 마무리 한다.	인사한다.		

VI. 結論

이 논문은 蘆溪 朴仁老의 現實認識과 寫實性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노계의 詩歌 작품을 통해 그의 현실인식과 이념적 지향성에 대한 학습방법을 5WHY 기법, SCAMPER 기법, 뇌구조 그리기 등의 방법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蘆溪 朴仁老의 生涯를 살펴보면 그는 전형적인 사대부들의 시가 작품과 달리 현실의 체험적 삶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사대부로서의 의식을 지향했으나 입신할 수 없었고 전란으로 피폐해진 사회구조와 경제적 몰락으로 인해 사대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노계의 갈등의식의 표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蘆溪는 戰亂 이후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무너져버린 사회적 상황에서도 사대부로서의 이념적 추구를 놓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노계 전체의 삶을 살펴볼 때 그는 유교적 관점에서의 입신에 도달한 인물이라 평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노계가 사대부로서의 자의식을 완전히 妄覺한 인물도 아니었다. 이런 배경은 노계가 의식적으로 갈등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것은 문학적으로 노계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현한 동력이 되었다.

다시말해 전란으로 몰락한 사회와 가문이 노계에게 경제적 궁핍을 안겨주었고 현실적으로 서민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으나 노계를 서민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분명히 의식적으로 노계는 사대부 특히 文人으로서 삶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둘째, 蘆溪 朴仁老는 학문 수양에 힘쓰거나 관직에 나가 입신을 달성하고자 했던 사대부로서의 의식과 달리 전란 이후 현실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었으며, 그런 상황이 노계의 이상과 현실 속 갈등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노계가 작품에서 말한 安貧一念 즉 安貧樂道의 이상적 삶은 사대부들이 말했던 추상적이고 이념적 지향이 아닌 현실 속에서 노계가 가졌던 체념의식의 한 표현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계는 정계의 중심에 위치하지 못한 변방의 鄉班이었지만 그 나름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백성과 호흡하며 실천하려 애썼다. 다만 그런 실천 지향의 지식인이었던 노계에게 자신의 지향을 펼칠 수 있었던 상황이 주어지지 않음으로써 갖게 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갈등의식은 노계의 삶 속에서 평생의 골레였다. 그러나 노계는 그 속에서 좌절하여 주저앉지 않았으며 자신의 한계 속에서 끝없이 벗어나고자 하는 실천인이었다. 이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벼슬에서 물러난 이후에 쉬지 않고 학문적 수양의 길을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했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노계는 쉬지 않는 실천적 노력이었다. 노계가 가졌던 갈등의식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노계 나름의 삶의 실천이다.

셋째, 蘆溪 朴仁老가 旅軒을 從遊하며 학문 수양에 정진하던 시기는 사대부 文人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었으며 학문 성숙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후반부 노계의 작품 세계에서 도학 수양과 山水隱居를 통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문 수양 이전 노계 시가에서 드러난 현실인식과는 구별되는 修養樂道의 새로운 지향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계에게 있어 道學實踐은 삶의 과정에서 주어진 사명과 같았다. 치열한 삶의 싸움에서도 그가 배웠던 道學의 실천적 지향을 꿈꾸며 살았다. 그의 의식적 지향은 개인적 지향이면서 동시에 사대부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실천의 방향이었다. 그런 지향과 실천이 安貧一念, 憂國忠情, 田園에 대한 애정으로 드러난 것이다.

넷째, 蘆溪 朴仁老의 생애를 통해 노계 시가의 현실인식과 寫實性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었다. 삶의 현장에서 노계의 실천적 삶은 그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토대가 되었다. 그 인식은 자신의 삶 속에도 녹아 있는 경험과 변화를 추구하는 실천적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노계 시가의 寫實性은 그가 가졌던 이상과 현실적 상황에서의 간극에서 생기는 고통을 갈등의 형태로 드러낸 것이었다. 노계 시가의 현실인식과 寫實性은 노계에게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기도 했던 전란 이후의 사회에 대한 변화추구의 강한 의지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것을 작품 속에 드러낸 것은 노계가 가진 강한 의지의 실천적 노력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노계 시가의 지도에 앞서 고전 시가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습자

들의 일반적 성향을 설문을 통해 진단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 중 하나가 학습자 본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거리가 있는 주제의식의 학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人生無常, 安貧樂道, 忠孝禮와 같은 주제의식에 대해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습자들은 공감을 갖지 못하며 이런 정서적 반응이 자칫 ‘고전 시가는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부정적 학습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전 시가의 주제의식을 현대인의 삶과 연관있는 갈등의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습에 적용하였다.

여섯째, 노계 시가의 지도 방안으로 「陋巷詞」, 「船上嘆」, 「立巖二十九曲」의 세 작품을 통해 노계의 현실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가상의 대단원을 설정하고 단원의 학습목표에 맞춰 여섯가지 수업 모델을 제시해보았다. 단원 설정의 목표를 고등학교 성취평가 기준에서 찾았으며 이를 실제 단원 설정에 적용했다.

일곱째, 「陋巷詞」의 학습을 전란 이후의 현실과 유교적 이상 사이의 내면적 갈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이에 먼저 노계의 뇌구조 그리기 활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 따른 인물의 심리적 반응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반응과 생각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내면 갈등의 양상임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Hot seating 기법을 통해 작품 속 화자의 삶이 선택의 문제임을 알게 했으며, 그 선택의 이유를 학습자 간에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뷰 활동을 전개하도록 수업을 설정하였다.

여덟째, 「船上嘆」은 임진왜란 이후 전쟁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조국에 대한 우국지정의 마음 속과 자신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간극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SCAMPER 기법을 통해 새로운 상황의 가정을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활동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학습자들이 서로 다르게 파악했던 고민을 확인하도록 가상의 SNS 댓글 달기 활동을 학습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아홉째, 「立巖二十九曲」의 학습에서는 5WHY 기법을 통해 ‘왜’라는 질문의 반복으로 현재 화자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왜 노계는 임압으로 간 것인가? 왜 노계는 「陋巷詞」에서의 삶 이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학문적 從遊의 길을 걷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화자의 상황에 근본적

으로 접근하며 화자가 가졌던 다양한 생각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의 확인과 학습자 간 공유를 위해 입국 심사 활동을 통해 학습자끼리 질문을 답변을 주고 받으며 자신이 내린 답에 대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후 전체 발표로 그 내용을 내면화하도록 하였다.

노계의 작품에 보이는 현실인식과 寫實性은 양반으로서 살아가고자 했으나 사회적, 경제적 한계에 부딪친 노계의 치열한 삶의 흔적이었다.

뇌구조 그리기, 5WHY 기법, Hot seating 기법, 입국 심사 모형 등의 학습모형을 통해 작품 속에 드러난 노계의 현실인식과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수업의 모형이다. 이런 학습활동은 살아가면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될 학습자들이 자신이 겪게 될 갈등 상황에 대해 질문과 객관화, 자문자답을 통해 갈등 상황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 이들이 겪게 되는 보편적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학습자의 주도적 문제 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動因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고전 작품에 드러난 노계의 현실인식과 寫實性을 갈등 의식의 한 양상으로 학습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고전 시가 작품에 보이는 삶의 양상이 우리의 현재적 삶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것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라 수용하게 되는 것은 문학 교육의 한 의의를 달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문기 역주, 『國譯 蘆溪集』, 역락, 1999.
- 朴仁老, 『蘆溪集』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 張顯光, 『旅軒集』 <韓國文集叢刊 <http://www.krpia.co.kr>> .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2000
- 박성익, 『송강·노계·고산의 시가 문학』, 현암사, 1972.
-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부산대학교출판부, 1994.
- 손오규, 『산수미학탐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6.
- 손오규, 『퇴계시와 미학』, 제주대학교 출판부, 2012.
- 이동영, 『조선조 영남시가연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 이동영, 『歌辭文學論攷』, 부산대학교 출판부, 1987.
- 이상보, 『개고 박노계 연구』, 일지사, 1962.
- 이승남, 『사대부 가사의 갈등표출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3.
- 윤사순, 『한국유학사』 上下, 지식산업사, 2012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3판)』 3, 지식산업사, 1994.
- 조윤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
- 조윤제, 『한국시가사강』, 을유문화사, 1951.
- 황충기, 『노계 박인로 연구』, 고전문학연구18, 국학자료원, 1994.
- 황폐강 외, 『한국문학작가론2: 조선시대의 작가』, 집문당, 2000.
- 고형진 외, 『문학Ⅱ』, 천재문화, 2011.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 권일경 외, 『해법문학1: 고전문학』, 천재교육, 2009.
- 이상익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8.
- 김선수·조현선 외, 『거꾸로 교실: 수업자료실』, 미래엔, 2017.
- 황재웅·공명철 외, 『손에 잡히는 교과서 문학: 고전시가편』, 미래엔, 2012.

2. 논문

- 구수영, 「蘆瀾 朴仁老의 詩歌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 김경량, 「노계시가에 나타난 사상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김광조, 「<누항사>에 나타난 탄궁의 의미」, 『고전과 해석』, 제2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07.
- 김기탁, 「노계가사의 현실인식: <누항사>를 중심으로」, 『영남어문학』, 제7집, 영남어문학회, 1980.
- 김기탁, 「노계 박인로의 문학사상」, 『영남어문학』, 제15집, 영남어문학회, 1988.
- 김사업, 「노계 <입암곡>의 계보」, 『국어국문학』, 제20권, 국어국문학회, 1959.
- 김석배, 「朴仁老의 <早紅柿歌> 研究」, 『문학과 언어』, 제27집, 문학과언어학회, 2005.
- 김성은, 「노계 박인로 가사의 공간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용철, 「朴仁老의 江湖歌詞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현주, 「정철의 관동별곡 연구」, 세종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논문, 2002.
- 김홍규, 「16·17세기 강호시조의 변모와 전가시조의 형성」, 어문논집35
- 남승도, 「노계 시가의 주제의식과 산수락 지도」,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논문, 2014.
- 박연호, 「<누항사>에 나타난 ‘가난’과 ‘우환’의 의미」, 『한민족어문학』 제64호
- 성범중, 「노계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94, 국어국문학회, 1985
- 우응순, 「박인로의 안빈낙도 의식과 자연」, 『한국학보』, 41집, 한국학보, 1985.
- 이동희, 「晦齋 李彦迪의 생애와 사상」, 『한국학논집』, 제19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2.
- 이두희, 「임진왜란기 신분변동과 민의 의식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5.

이종문, 「〈蘆溪歌〉의 창작 연대와 蘆溪 朴仁老의 蘆洲 隱遁 시기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제47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이주아, 「노계 박인로의 전쟁가사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응환, 「〈누항사〉의 교육적 의미와 지도의 실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최상은, 「노계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최상은, 「노계가사의 창작기반과 문학적 지향」, 『한국시가연구』 제11집, 한국시가학회, 2002

최현재, 「재지사족으로의 박인로의 삶과 〈누항사〉」, 『국문학연구』, 제9호, 국문학회, 2003.

최현재, 「朴仁老 詩歌의 現實的 基盤과 文學的 指向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최현재, 「朴仁老의 〈노계가〉에 나타난 강호 인식의 양상과 의미」, 한민족어문학회 학술논문, 2013

황충기, 「〈조흥시가〉 고구」, 『어문연구』, 통권 제55호·제56호 합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87.

황충기, 「노계 박인로론」, 『어문연구』 38, 1983

<Abstract>

Teaching of the awareness of reality and truth in Nogae's poetry

Yang, Jeong-hwan

A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awareness of reality and truth in Nogae's poetry, considering teaching methodology in that regard. Especially, this thesis focuses on the awareness of and truth in Nogae's poetry in terms of three conflicts between the ideals and real life of Nogae, one of which is the conflict between devastated real life in post war period and ideals as a Yangban, a gentry class; the second one is the conflict between limits on status of him with the lowest position on the military and the feelings of strong hostility towards Japanese invaders; the third on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awareness of cultivation practice and real life of him. In regard to this study, the teaching methodology is also presented in this paper.

Firstly, through the research of Nogae's whole life, it is believed that he focused on his own experiential real life with his poetry, on the contrary to the poetry of the gentry class, which is regarded as the expression of his awareness of conflict.

Secondly, with various his poetry, being content with his life as it is, which is revealed in his poetry, has no choice but to be considered as one of the expressions of not the ideal but the resignation consciousness of him.

Thirdly, it is thought that the period of concentration on his study along with Yeohun Jang Hyun-Gwang was the course of establishing his identity as a writer as well as the course of being content with cultivating his study.

Fourthly, prior to teaching Nogae's poetry, for those whom have

difficulty with learning Korean classical poetry, it is thought that one of the reasons of difficulty with learning is the subject of Korean classical poetry which is far from the real life of learners own.

Fifthly, this paper presents six teaching models respectively with learning objectives in imaginary units as an teaching methodology of Nogae's poet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awareness of reality of Nogae, based on *Nuhangsa*, *Seonsangtan*, *Ipanisipgugok*.

Throughout this study, it is clearly seen that Nogae was not the person who gave up in the situation which is not in favor of him but the challenger to expand his life in it.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studying Korean classical poetry is not only to succeed to tradition but also rediscover modern consciousness of the poetry.